동 창 회 보

인·향

2015 Autumn

vol 108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03 Intro

동창회 소식
04 이사회 소식
06 장학금 수여식
08 제18회 행운의 밤

Special Issue
10 제28회 테니스대회
16 제12회 골프대회

22 33회 졸업 50주년 홈커밍
26 58회 졸업 25주년 홈커밍

30 지부 소식
32 동기회 소식
37 모교 소식

동문탐방
39 송경원(41회) 동문
42 김성기(58회) 동문
45 개인동정
47 경조사

동문문예
49 43회 졸업 40주년 행사
52 53회 졸업 30주년 행사
59 '松軒 HALL' 개관의 所懷

경북의대 동창회 기금 현황
60 발전기금 납부 현황
68 2015년도 장학기금 모금 현황
69 장학기금 1인1계좌 명단
75 기수별 전체 기금 납부 현황
89 북미주지부 장학기금 납부 현황

동창회비 현황
91 동창회비 납부 현황

96 동창회 기수별 회장단 명단
98 편집후기
99 송금안내 및 동창회 임원

2015 Autumn
통권 **제108호**
발행인 동창회장 지용철
편집인 공보이사 김인겸
발행일 2015년 10월 30일
편집대행 e-포럼 (053)744-8416
e-mail kpmedal77@hanmail.net

익어가는 가을

이해인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말이 필요없는
고요한 기도

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

2015년 이사회 소식

제1차 상임이사회

일시 2015년 3월 2일(월) 오후 7시
장소 만리장성
참석 지용철, 김제형, 안기영, 이민석, 손효돈, 정현주, 김문규, 김정민, 제석준, 김인겸, 최동호, 상영호, 최창혁, 최재석, 이우근, 변승득

김제형 전임 의사회장을 동창회 부회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서울지부 활동 독려, 안행대상 시상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또한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사들을 중심으로 글 게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장학기금 예우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제2차 상임이사회

일시 2015년 4월 6일(월) 오후 7시
장소 의대본관 2층, 제2교수회의실
참석 지용철, 박문흠, 강인구, 정현주, 김문규, 김정민, 제석준, 최동호, 상영호, 이우근, 변승득

30회 동문들이 졸업 50주년 기념으로 500만 원을 기탁하며 재학생 창조아이디어 행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신 것과 2014년 동창회비 납부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열릴 행운의 밤 행사는 박매자 의전원장과 동창회 임원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2009년 이후 제작하지 않은 동창회 명부 제작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제3차 상임이사회

일시 2015년 5월 4일(월) 오후 7시
장소 의대본관 2층, 제2교수회의실
참석 지용철, 송중원, 김재왕, 박성민, 이민석, 손효돈, 정현주, 김문규, 김정민, 제석준, 최동호, 민복기, 신현호, 상영호, 최재석, 서영익, 임정훈, 이우근, 학생대표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는 동창회비 1억 2천만 원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한 회비 납부 독려 사항과 테니스 대회 결과 보고, 동창회 명부 제작 세부사항, 안행대상 규정 개정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행운의 밤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제4차 상임이사회

일시 2015년 6월 1일(월) 오후 7시
장소 의대본관 2층, 제2교수회의실
참석 지용철, 고삼규, 김재왕, 김문규, 김정민, 제석준, 최동호, 상영호, 김경호, 임정훈, 이우근, 변승득, 최시호, 학생대표

제4차 상임이사회에서는 행운제 행사보고가 있었다. 조직적으로 잘 진행되었고,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동창회보 발송에 대한 문제와, 동창회 명부발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14회 안행대상 추천 접수를 시작으로 행사 진행을 논의하였으며, 동창회보 납부 징수에 대한 방법 등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5차 상임이사회

일시 2015년 7월 6일(월) 오후 7시
장소 의대본관 2층, 제2교수회의실
참석 지용철, 송중원, 박문흠, 강인구, 고삼규, 박성민, 손효돈, 정현주, 김문규, 김정민, 제석준, 김인겸, 최동호, 민복기, 신현호, 상영호, 최재석, 신현웅, 서영익, 임정훈, 이우근, 김대현(동산의료원 간사)

동창회 명부 발간을 위한 업체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된 제5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새로운 동창회 명부 제작 계약을 하였으며, 기별분담금과 동창회비, 10월 발간 예정인 동창회보, 골프대회, 등반대회 등 전반적인 동창회 행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제6차 상임이사회

일시 2015년 9월 7일(월) 오후 7시
장소 의대본관 2층, 제2교수회의실
참석 지용철, 송중원, 박문흠, 박성민, 김문규, 김정민, 제석준, 김인겸, 최동호, 신현호, 상영호, 신현웅, 임정훈, 이우근, 김대현(동산의료원 간사)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는 9월 3일에 있었던 동창회와 의전원 집행부, 병원 집행부 간담회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의학박물관 개관 준비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2016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작업이 한창이며, 상설전시와 특별전시로 구분하여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골프대회 결과 발표와 9월 3일에 열린 경북대 총동창회이사회 참석내용 보고가 있었다.

2015 후학기 장학금 수여식

2015 후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8월 24일 경북의대 중앙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수여식에는 경북의대 동창회장과 의전원장, 의전원 교직원 및 그 외 여러 내빈들이 참석하였으며,
총 47명의 의전원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2015 후학기 장학금 수혜학생 명단(총 47명)

학년	이름
4학년	고귀한, 김민석, 김진희, 김찬근, 박경민, 이재혁, 정보길, 하은지
3학년	강원일, 김용태, 김태경, 신아름, 심창균, 윤영상, 이진석, 이채진, 정지욱, 주지희
2학년	박혜진, 배한나, 안상준, 이동연, 이선화, 장동성, 정승희, 황정원
1학년	강한솔, 김보영, 김영익, 김지현, 백유경, 전온유, 정수영, 천수빈, 최경은, 최재혁, 허건영
의예1학년	권세열, 권오진, 임창훈, 이현지, 최정규, 이현석, 이지민, 김현민
의과학과	강설희, 김미나

선배님으로부터 배운 가르침

글 _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심창균**

유난히 더웠던 여름입니다. 밤바람이 조금씩 시원해져 가는 지금,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부한다고 하얗기만 하던 동기들의 얼굴이 그을려 건강해보입니다. 1,2학년 수업시간에 열정적으로 의학을 가르쳐주신 교수님께서도 출근하시며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십니다. 저는 흰 가운이 아직 어색한 티가 나는 3학년입니다. 벌써 병원 실습을 나간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입학 당시 모자란 등록금을 마련해준 친구들이 떠오르고 어렵게 꺼낸 속사정을 듣고 흔쾌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동기와 선배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아버지 사업의 악화로 입학하기 전부터 휴학을 각오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취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한 후,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리고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배우고 싶어 의사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도 근심 없이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 것은 우리 학교 교수님들과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도움을 요청하고 고마운 도움을 받았지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전에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곤란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성만 부원장님과 김인겸 교수님께 사정이 이러하여 휴학을 해야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며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라는 말씀과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 졸업하신 선배님께서 저의 어려운 상황을 딱히 여기시고 등록금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여 교수님께 “제가 인사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으나 선배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실 거라며 의사가 되어서 찾아오면 알려주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를 도와주신 선배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그 분께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이러한 상황 덕분에 선배님들의 온정과 사랑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동창회 장학금 역시 이러한 선배님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 구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겐 격려의 의미로, 저같이 어려운 학생에겐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저 또한 후학에게 베풀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 어려운 사정을 살펴봐 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제18회 행운의 밤 행사를 돌아보며

글 _ **김문규**(57회) 총무이사

매년 5월이면 학교에서는 학생 축제가 열린다. 그 축제의 가장 절정이 바로 '행운의 밤' 행사라 할 수 있다. 학생, 교수, 동창회가 한데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다. 행운의 밤은 동창회 행사 중에서 예비 동창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과 직접 어울릴 수 있는 유일한 행사이기도 해서 동창회에서는 매년 기대도 크고 또 그만큼 걱정도 많은 행사이다. 학생들이 졸업하면 동창회 멤버가 되고 그 멤버들이 동창회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 만나는 어린 후배들이 동생이나 자식과 같은 느낌도 있고, 의사로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삶의 일부라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 자신의 학창시절이 생각나서 축제에서 같이 술 마시고 어깨동무 하면서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몰려오는 것이 참여하는 선배들의 느낌이 아닐까.

작년은 세월호 사태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올해 행운의 밤은 더 기대가 컸다. 박매자(53회) 모교 의전원장님과 조병채(52회) 경북대병원장님, 많은 교수님들, 동창회장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상임이사진과 박성민(51회) 대구시의사회 회장, 김재왕(51회) 경북의사회 회장님 뿐 아니라 김재식(28회) 선생님과 김두희(29회) 선생님과 같은 원로 선배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다. 학생들이 있는 각 테이블마다 졸업선배들 2명씩 같이 자리하여 선후배 간의 따뜻한 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1부 인사말/축사에 이어진 2부 행사에서 에델바이스, 우리하나, MCO(Medical chamber orchestra) 음악공연을 보면서 졸업선배들은 자신이 학창시절 참여하고 공연하였던 모습을 회상할 수 있었으며, 2부 마지막으로 올해 졸업 25주년 홈커밍 행사를 준비하는 정병용(58회) 동기회 회장의 멋진 트럼펫 연주와 서영익(58회) 정책이사의 별은 빛나건만(E lucevan le stelle)과 그대는 나의 모든 것(Dein ist mein ganzes herz) 노래는 선배들이 그저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직접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날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3부에서는 2학년 강주연 학생과 최동호(54회) 사업이사가 사회를 맡아 학생과 교수 그리고 졸업선배가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몇 년 전 모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선배님들이 행운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마이크를 너무 오래 잡아 다소 눈살을 찌푸린 적도 있었지만, 올해 행사는 사업이사님의 능숙한 진행과 더불어 적절한 시간에 축제의 주인인 학생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를 즐기고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뜻 깊은 행운의 밤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행운의 밤 행사는 졸업선배들에게는 학창시절의 추억과 발전해 가는 모교의 모습을 지켜보고, 학생들에게는 장차 바로 자신들이 저런 선배가 될 것이라는 동경과 모교를 사랑하는 동창회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만남과 축제의 장일 것이다. 내년에는 더욱 멋진 모습으로 같이 만나기를 기원한다.

제28회 경북의대 동창회 테니스대회

행사 당일의 모습

2015년 4월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모교 테니스코트에서 제28회 경북의대 동창회 테니스대회가 열렸다. 동창회 주최 테니스대회는 1987년 1회 대회를 기점으로 2015년 제28회 대회를 치른, 경북의대 동창회의 저력이 깃든 행사이다.

늘 그러했듯이 이날도 4월의 눈이 부시도록 화창한 날씨가 행사를 도와주었다. 경북의대 테니스대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총 28회의 대회 중 딱 한 번(7~8년 전) 예보되지 않은 비를 만나 행사를 못하고, 식사만 하고 돌아간 적이 있었고, 언제나 날씨가 행사를 도와주곤 했다. 예나 지금이나 도심에 교정이 있고 거기에 공원 같은 테니스코트가 있다는 것은 우리 테니스를 치는 동문들에게는 큰 축복이다. 이날따라 화사하게 피어난 영산홍과 일찍 피어난 줄장미들이 행사를 축하하듯이 주변을 밝혀주었다.

경북의대 동창회 테니스대회는 1990년 후반까지만 해도 경북대 캠퍼스의 테니스코트를 빌려서 할 만큼 참석인원이 많았으나, 골프 인구가 많아지면서 점점 참석인원이 줄어들어 최근에는 30여 명 전후의 선수들이 참석하고 있다.

골프도 그렇지만 테니스도 예를 차리는 운동이어서 많은 의사들이 여전히 테니스를 선호하고, 지역이나 동네 단위의 테니스장을 주름 잡는 고수가 많음에도 공식적으로 치러지는 대회를 멀리하는 실력자들이 많은 것으로 동창회는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무림의 고수들이 내년에는 더 많이 동창회 테니스대회로 진출하여 경북의대 동창회 테니스대회를 빛내주기를 바래본다.

참석동문들의 면면

재학시절에는 테니스장에 선배가 있으면 후배들은 얼씬도 못할 만큼 분위기가 엄중하였고, 테니스가 영국신사의 운동이라 하여 아래위로 반드시 흰옷을 착용하고, 테니스화 착용도 필수였다고 전해진다. 예절과 정이 어우러지는 분위기, 엄격하고 보수적이나 따뜻함이 흐르는 분위기였다 하겠다.
동창회 테니스대회는 이와 같은 전통을 공유해온 동문들이,

담장을 헐어 더 공원분위기가 나는 모교 테니스코트에서 열띤 경합을 벌이며 보통 40~50명의 인원이 참석하고 있다.

이런 테니스대회의 역사 깊은 전통의 근저에는 원로동문 선배님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18회 전기영 동문을 필두로 전병석 동문, 소원영 동문, 김충남 동문이 늘 참석하시고, 전기영 동문, 이동식 동문 선배님은 테니스장에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여러 후원활동도 해주셨다.
그 외 참석동문들의 면면을 보면, 워낙 빨라서 다람쥐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김철수 동문을 선봉으로, 추연만 동문이 뒷심을 발휘하며 늘 우승을 도맡아 하던 42회에 이어 10년 전부터는 53회, 54회가 약진하고 있다. 올해 가장 많이 참석한 기수는 54회였으며, 54회 박순원 동문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기염을 토하였다.

늘 참석하시는 동문으로 '대기'라는 별명을 가진 정무달 동문(42회)이 있으며, 대기만성을 줄여 '대기'라 하는데 그 이유는 조일테니스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테니스에 매진하여 뒤늦게 잘 치시게 되었다고 한다. 참석 동문 중 파이팅이 제일 좋은 동문은 대선배이신 35회 김영희 동문이시다.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시고, 항상 술 한 잔 하신 모습으로 응원을 열심히 해주신다. 김영희 선생님과 동기이신 김충남 동문, 김무현 동문 등 이 기수의 참석률이 늘 압도적이다. 부부 참석동문은 53회 신언성 동문이 있었으며, 흥일점으로 포항의 노선주 동문(56회)이 참석하여 D조에서 선전하였다.

이번 28회 테니스대회에는 지용철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최동호 사업이사, 상영호 정보이사가 참석하여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였다.

성적 및 시상내역

우승
C조
추연만, 김철수, 신언성, 김선인, 박순원, 권세윤

준우승
A조
전병석, 소원영, 배성일, 홍성권, 김태석, 양동렬

3위
D조
서상철, 최진교, 노선주, 허준호, 김성환, 이현석, 백성욱

개인상
최우수선수상 – 박순원
감투상 – 소원영
미기상 – 전병석

champion interview

고수님들 많이 나와주세요~

최우수선수상 _ **박순원**(54회) 동문

제28회 테니스대회에서 분에 넘치는 상을 받았다. 단체 결승전 마지막 조였던 나와 권세윤(72회) 후배가 세트 스코어 3대5로 지고 있다가, 5대5로 비긴 후에 7대5로 역전하면서 C조 우리팀이 극적인 우승을 한 것이 상을 받은 이유일 것이다. 최우수선수상의 상품은 락앤락 주방용기. 수상을 자랑할 겸 부상으로 받은 그릇을 들고 볼보 차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더니, 후배들이 볼보가 부상이냐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었다.^^ 골프도 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테니스가 좋다. 요즘도 진료실 책상 아래 테니스라켓을 두고 환자 보는 짬짬이 스윙연습을 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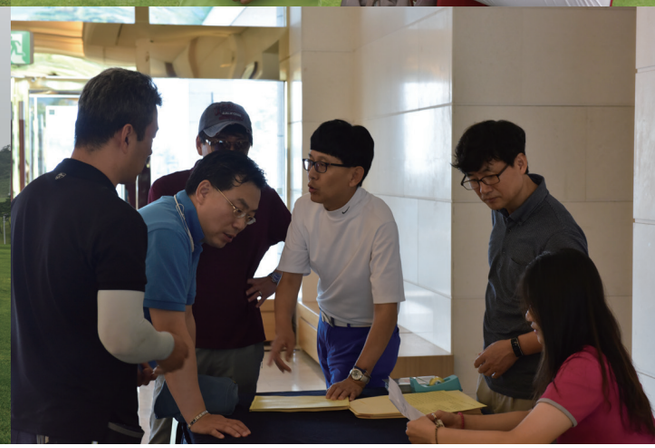
동창회 테니스대회가 어느덧 28회째를 맞았는데, 참석회원 수가 점점 줄어들어 아쉬움이 크다. 테니스가 골프에 비해 힘이 많이 들고, 또 후배들의 경우 골프를 일찍 접하게 되면서 테니스를 치는 동문들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테니스는 장점이 많은 운동이니 앞으로 다시 테니스의 영광은 재현될 것이다.

우리 동문 중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많으며, 일명 동네고수들이 많다. 실력은 출중하나 대회에는 안 나오시는 분들이다.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대거 나오셔서 동창회 테니스대회가 대 격전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나, 의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하루 쉬는 일요일에 참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토요일 오후에 행사를 열면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우리 모교 테니스코트에는 멋진 조명시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내년에는 강호의 무림고수들이 대회에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최우수선수상 부상은 주방용품 말고 좀더 좋은 걸로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까지 그러했듯이 테니스는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스승이자 많은 위로를 주는 운동이다.

제12회 경북의대 동창회 골프대회



행사 당일의 풍경

2015년 8월 23일 일요일, 제12회 경북의대 의전원 동창회 기별 대항 골프대회가 인터불고 경산CC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기별 대항 선수팀 13조, 초청인사 및 개인전 2조, 총 15조 60명이 선수로 참가하였다.

골프대회 당일은 늦여름의 전형적인 날씨로, 정오 무렵은 다소 더웠으나 오후가 되면서 서늘해져 운동하기 좋았던 날씨였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식전 기념촬영이 있었으며, VIP들의 시타가 이어졌다. 이날 가장 원로 동문으로 참석한 인주철 동문의 시타에 이어 김징균 동문, 변영우 전임 동창회장, 박성민 대구시의사회 회장, 이동수 경북대 총동창회장 등의 시타가 있은 후 스카이, 밸리, 마운틴 코스로 티업을 하였다. 골프대회 초기 참석인원이 너무 많아 골프장 섭외 등의 애로로 한 기수당 4명 참석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날 선수로 참석한 기수 중 가장 높은 기수는 박윤규, 손수상 동문이 참석한 41회였고, 가장 어린 기수는 64회였다. 이날 유일하게 참석한 여동문은 53회 김재선 동문으로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주최 골프대회는 198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1992년 6회까지 치러지다가 중단된 후, 2010년 18년 만에 제7회 대회로 재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제7회 대회는 총 34조 135명의 동문이 참석할 만큼 열기가 대단하였다.

최근에는 매년 참석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번 대회에는 가장 높은 기수로 참석한 41기와 우승을 획득한 51기의 10기수 중간 5기수의 참석자가 없어 아쉬움으로 남았다. 통상 60세에서 65세의 동문들이 가장 동창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편인데, 이 분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대회였다.

제12회 동창회 주최 기별대항 골프대회에서는 51회 동기회가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같은 기수 장대성 동문이 75타로 챔

피언을 획득하였다. 이날 경북대 출신이 대표로 있는 골프공 회사에서 골프공을 선물로 기증하면서 이 공으로 동문들이 경기를 치렀다.

다음 대회에 대한 각오

우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은 9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동창회원 수도 8,500명에 이른다. 우리 모교와 비교할 만한 대학으로 전남의대가 있으며, 7,500명의 졸업동문에 역사는 20년이 짧다. 전남의대도 동창회 주최의 골프대회를 치르고 있으며, 최소 30~40팀이 늘 참석한다고 한다.

2010년 제7회 대회로 재개된 동창회 골프대회가 총 34조 135명의 동문이 참석하면서 분위기가 시끌벅적했던 반면, 골프장 예약 등 현실적인 애로로 한 기수당 4명만 참석토록 하면서 참석인원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이번 제12회 대회에서 우승을 한 51기의 경우, 동기회 주최 골프모임에서 10팀까지 운행하는 등 골프를 통한 동문들의 친목활동이 활발하다. 기존에 적용하던 기수별 인원제한을 없애서 골프를 치는 동문들이 모두 참석하게 하여 참가 동문이 많은 기수에게 참가상도 수여하고, 동기회별로 가장 잘 친 동문 4명의 성적을 합산하여 우승팀을 선정하는 등 더 나은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

모든 모임이나 행사가 그러하듯이 우리 동창회 행사도 재미가 있으면 많이들 참석하실 것이다. 내년에는 규제를 풀어 참석을 원하는 동문 누구나 참석해서 함께 즐기고 친목을 도모하는 대회로 추진할 계획이며, 여성 동문들도 많이 참석하시기를 소망해 본다. 초청인사들도 우리 동문 이외에 저명인사, 연예인 등으로 길을 열어두어 골프대회 행사에 동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준비할 것이다.

이번 대회에 동창회에서는 지용철 동창회장을 필두로 최동

성적 및 시상내역

우승
51회(장대성, 김태준, 권오종, 김경수) 평균 79타

준우승
64회(심삼도, 권동수, 박성현, 신용환) 평균 80타

3위
59회(조준용, 김하균, 정주화, 김학수) 평균 81타

챔피언
1위 장대성(51회) 75타
2위 심삼도(64회) 77타
(back count)
3위 신현호(55회) 77타
4위 조준용(59회) 78타

개인전 우승
박성민(51회) 81타

인기상–김재선(53회)
롱기스트–김학수(59회) 340m
니어리스트–이동현(54회)
14cm

감투상–인주철(33회)
페어플레이상–박윤규(41회)
총동창회장상–김지성(48회)
의대동창회장상–김일환(57회)

도움을 주신 분
박매자(53회) 의전원장
: 기념 타올
이동수 경북대 총동창회장
: 골프공
박성민(51회) 대구시의사회장
: 금일봉
김재왕(51회) 경북의사회장
: 금일봉

호 사업이사, 김문규 총무이사, 이우근 정책이사, 상영호 정보이사가 행사 진행을 하였으며, 송중원 부회장은 선수로 참석하였다.

동창회 집행부에서는 내년 제13회 골프대회를 특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재미나게 진행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champion interview

챔피언 _ **장대성**(51회) 동문

그분이 강림하신 날

동창회 주최 골프대회에서 우리 기수가 우승을 하였다. 제7회 대회 우승이라는 저력을 가진 우리 기수는 동기회 주최 골프회동에서도 10팀을 꾸릴 만큼 우애 넘치고 활동력이 탁월한 기수이다.

특히나 올해는 골프대회 참석자에게 지원하던 동기회 분담금이 인당 10만 원에서 전체경비 25만 원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면서, 골프대회 성적에 대한 부담감도 따라왔다. 골프대회 참석 전 우리 팀은 동기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전 라운딩을 여러 차례 가지는 등 물밑 준비를 해왔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여름의 중간에 펼쳐진 대회라 태양은 이글거렸고, 우리의 각오도 남달랐는데 결과는 우승, 그리고 내가 받은 보너스는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이었다.

골프를 좋아했고, 꾸준히 운동을 하긴 했어도 챔피언을 할 만한 실력은 아니었는데, 운이 따랐던 것 같다. 총 9홀을 도는 경기에서 한 홀에서 버디를 3개 잡는 등 내 실력 이상을 발휘하여 그분이 강림하셨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동창회 주최 골프대회를 통해 반가운 선후배 동문들을 만나고, 함께 운동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이 있었던 그날, 그분의 강림으로 나는 챔피언의 트로피를 집으로 가져올 수 있었고, 우리 동기들의 활약으로 우리 51회 동기회가 우승하여 전체경비를 지원해준 우리 동기회에 선물을 들고 금의환향 할 수 있었다.

이 대회를 기획하고 주최하신 동창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많이 기획되길 바란다.

33회 졸업 50주년, Golden Reunion을 마치고

글 _ 33회 동기회장 **박원길** 동문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인 1965년 2월, 경북의대 33회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고 우리 동기 86명은 병아리 의사로 태어났다. 우리는 모교 및 타 병원 인턴으로, 군의관으로, 모교 기초교실 조교 및 예방의학 장학생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길을 갔다. 또한 American Dream의 꿈을 품고 미국행을 택한 동기가 31명에 이르렀다.

1990년 졸업 25주년 Homecoming 모교방문 행사 때 대구 수성관광호텔에서 만남의 장을 가졌다. 국내 동기들은 모두들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일가견을 갖고 인정받는 의젓한 50대의 중년 의사로 틀이 잡혀 있었고, 재미 동기들도 American Dream을 성취하여 부와 명예를 이룩한 멋진 모습들이었다. 우리 세대는 어떤 분야에서든 독일로 파견된 간호사와 광부같은 체험과 노력을 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었기에 성공 뒤에 숨어있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 졸업 30주년에는 미국 하와이를 거쳐, LA에서 동기들과의 재회의 기쁨을 만끽하며 중년의 여유로움을 즐기면서 추억을 만들었다.

금년 2015년 5월 5일부터 9일까지 모교의 은혜를 기리며, 우리 33회 동기들이 엄마 품에 안기듯, 부부해로 금혼식을 기념하듯이 졸업 50주년 Golden Reunion을 가지게 되었다. 33회 동기회에서는 2014년 여름부터 국내 동기와 재미동기로 나누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생애에 한 번 오는 이 귀중한 행운의 만남을 준비하였다.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제일 걱정은 많은 동기들이 참여하고, 불원천리 찾아온 동기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쁨을 줄 수 있을까하는 것이었다. 재미 이수광 동기는 재미 동기들을 독려하여 30명 중 26명을 장학금 모금에 참여하도록 하여 $26,500의 장학금을 모금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국내에서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기들에게 참여를 알린 결과 국내동기 42명 중 33명의 호응을 얻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벌써 유명을 달리한 동기가 14명이나 되었다. 2015년 5월 5일 18시,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만촌동 인터불고호텔 까멜리아홀, 백발이 성성한 노학자요, 노신사요, 할아버지의 인자함이 배인 동기 부부들이 속속 모이면서 분위기가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다. 주름이 지고 백발이 된 얼굴에서도 옛 모습을 알아보고 서로 부둥켜안으며 반가운 포옹을 나누었다, 방명록에 사인을 하고 인증사진을 찍고, 정종학 동기의 주선으로 '도산서원 예절원' 귀부인 회원들의 우리 고유의 전통차와 다과 대접을 받으며 우리의 50주년 만남은 시작되었다.

참석 동기는 35명(대구 13명, 서울 7명, 기타지역 5명, 미국 10명)이었는데 이중 부부동반이 28명이고 본인만 참석이 7명으로 전체 63명이 참석하였다. 식사와 술이 몇 순배 돌고 각자 2~3분씩 자기소개를 했다. 졸업 후 50년 동안의 삶을 2~3분의 짧은 시간에 요약하기는 어려웠으나, 모두다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는 대부분 현역에서 은퇴, 또는 반 은퇴하여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소수는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혈기왕성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P형의 장기인 하모니카 연주는 여전하였으나 나이에 장사 없다고 맛(?)이 좀 간 것 같았다. 독창과 합창이 어우러져 가며 옛날 학창시절 막걸리집 실력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 삶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첫날의 만남은 서서히 막을 내렸다.

2015년 5월 6일 10시. 우리는 50년 전 우리를 의사로 만들어준 모교 교정에 모였다. 친구들과 같이 모교 중앙강당에 들어서니 학교와 병원의 보직 교수들이 노선배들을 반갑게 맞아주며 다과를 권하고, 의욕이 충만한 모교 지용철 동창회장, 박매자 의학전문대학원장, 조병채 병원장의 따뜻한 환영 속에서 모교방문 행사를 했다. 우리들의 작은 정성인 장학기금 및 발전기금을 전달한 후 모교를 둘러보았다. 새로운 강의실이며 시설들이 있으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곳은 해부학 실습실이며, 옛 강의실이었다. 학교를 둘러보고 교정에 나서는데 문득 길재 선생의 시가 생각난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모교 건물은 그대로인데 우리를 의사로 만들어주신 은사님들은 한 분도 안계시니 마음 허전하고 서운함을 어찌 달래겠나. 병원으로 건너와 본관건물 중앙에 준비 중인 의료박물관을 보면서 50년 전 PK 실습하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병원도 엄청나게 발전하였다. 때마침 노사협상 중이라 병원견학은 가볍게 마치고 조병채 병원장님이 마련해준 오찬장으로 가서 오찬을 즐겼다.

오찬 후 칠곡경북대병원을 시찰하였다. 박재용 병원장은 출장 중이라며, 보직 교수와 간호부, 행정부의 전 간부들이 도열해 우리들을 환영해주어 가슴 뭉클하며, 경북의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암센터와 소아병원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모교와 병원의 발전된 모습에 박수를 보내면서. 너무 내 삶에 빠져 모교와 후배를 돌아 볼 틈이 없었던 것을 반성하기도 했다.

대구 근대골목투어코스인 동산 청라언덕→3.1만세 운동길→계산성당→뽕나무 골목→이상화, 서상돈 고택 등을 문화해설사의 자세하고 성의있는 해설로 옛 추억을 되새겨 봤다.

저녁 6시 인터불고호텔 연회장에서의 만찬은 우리 33회 동기들이, 학창시절 우리들을 의사로 키워주신 생존하여 계신 은사님들과 학장, 병원장 그리고 동창회장 등 학교 보직자들을 모시고 자축하는 자리였다. 건강상 참석하시지 못한 함덕상(해부학) 선생님의 영상 축하 말씀을 경청하며 옛날의 건강하셨을 때를 회상하니 가슴이 뭉클해진다. 참석해주신 네 분의 은사님(윤정우 교수님, 유호열 교수님, 김익동 교수님, 서영욱 교수님)을 모시고 은사님들의 덕담을 들으면서 50여 년 전 그 시절을 은사님들과 같이 회상해 보았다. 재학생 MOC의 축하 연주를 들으며 분위기는 또 5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은사님들의 건강과 우리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건배를 들며, 친구들과 부인들의 추억의 메들리 옛날노래 속으로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학장님, 병원장님 그리고 동창회장님의 정성어린 선물은 우리를 감동시켜 주었다.

5월 7~9일의 2박3일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이번 여행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계획했다. 첫째는 노령의(?) 동기들의 단체여행이라 안전해야 되겠고, 둘째는 국내외에 흩어져 살면서 말로만 듣던 조국의 발전상을 조금이나마 직접 보고 느끼기 위해서였다. 동해안의 절경을 만끽하면서 또 세계 굴지의 포항제철의 웅대한 규모를 보면서 어려웠던 시기에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이와 같은 구상을 실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혜안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기도 했다.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둘러보며 수출 선적을 위해 쌓여있는 완성 자동차의 광장, 차종에 따른 공정 및 발전상을 보며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해운대는 옛날의 해운대 모습이 아니라 외국의 도시를 연상하게 하며 정말 상전벽해를 이루었으며, 우리 한국의 발전상의 한 단면으로, 오랜만에 모국을 찾은 재미 동기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들었다. 술과 선물을 준비한 포항의 김형우 동기와 간식 과일을 공급한 부산의 최명부 동기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드린다.

2박3일의 아쉬운 여행의 귀로에 오르니 그동안 쌓인 피로와, 참석동기들 모두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무사히 행사를 마쳤다는 안도감과 지난 4박5일의 50주년 행사가 꿈같이 지나고 이제 작별의 시간이 온다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앞선다. 이번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동기는 언제 만나도 반갑고 즐겁구나, 건강하면 더더욱 좋겠고, 자주 만나면 더 좋겠다. 또 바쁘게 사느라 모교에 대해 너무 무관심 했구나.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모교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반성이었다.

행사에 지원을 해주고도 개인 사정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동기 여러분에게 만나보지 못한 아쉬움과 더불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재미 이수광, 서울의 김병직, 대구의 준비위원 박문재, 이석강, 인주철, 정상립, 정종학 동기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총무를 맡아 기획부터 현장의 일까지 모두를 차질 없이 진행해준 인주철 동기 부부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들은 행사를 마치고 또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아쉬운 작별을 하면서 "모두들 건강하게",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만나세", "55주년도 해야지", "이번에는 연습이고 75주년 Diamond Union 때는 더 멋지게 해보세" 등을 이야기하면서 작별의 악수를 나누었다.

"33회 백수만세! 경북의대 만만세!"

58회 졸업 25주년, 모교방문 행사를 마치고

글 _ **최재석**(58회) 동문

몇 년 전부터 우리 동기들이 졸업 25주년 모교방문행사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지만 최근 동기회 활동이 다소 침체되어 모교방문 행사 준비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우리 58회는 졸업정원제 영향으로 본과 1학년 때 의대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인 273명이 같이 공부해 공동체라는 의식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의예과 입학동기 상당수는 유급을 했으며 새로 같이 공부하게 된 선배들은 동기라는 생각보다는 선배란 느낌이 더 많아 동기회 범주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동기회 결성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었고 1984년도 입학동기 58회 졸업동기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 다소 느슨한 범주를 가지고 지속되었습니다.

주소록에는 약 270~280명의 명단이 있었지만 막상 행사를 준비하려 해보니 58회 졸업생 가운데 22명의 동기가 이미 57회 모교방문 행사에 참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59회 행사로 참여하겠다는 입학동기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이 되지 않아 의대 발전기금과 동창회 장학금을 선배기수들 만큼 모금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많이 의기소침한 적도 있었습니다. 행사준비 진도는 많이 늦었지만 2015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점차 윤곽이 어렴풋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동기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총 108명의 동기들이 마음을 모아 2억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학창시절보다 더 친해져 동기애가 돈독해졌다는 점이 모금액수보다 더 중요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5월 29일 오후 4시부터 의대 중앙강당에서 졸업 25주년 모교방문 행사가 열렸습니다. 58회 동기인 신경외과 황정현 교수의 사회로 정성광 의무부총장님, 박매자 의전원장님, 지용철 동창회장님의 환영인사 말씀이 있었고, 역시 58회 동기인 미생물학교실 이제철 교수가 모교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58회 동기들이 모금한 의대 발전기금 1억 원과 동창회 장학기금 5천만 원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권정윤 교수님, 김두희 교수님, 김재식 교수님, 박일수 교수님, 성창섭 교수님, 송정흡 교수님, 이상흔 교수님, 강병조 교수님, 주강 교수님, 이죽내 교수님, 채성철 교수님, 황일우 교수님이 참석하셔서 저희들을 맞아주셨습니다.

내년 모교방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59회 황동하 회장, 정재군 총무도 참관했습니다. 소문에는 59회는 내년행사를 위해 벌써부터 합창준비까지 하고 있다니 59회의 모교방문 행사가 기대됩니다.

모교에서 행사를 마치고 근처 노보텔 앰베서더 호텔로 이동해서 은사님들을 모시고 사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교 행사에 참석 못하신 김시열 교수님, 김인택 교수님, 김행미 교수님, 박윤규 교수님, 박정한 교수님, 이상범 교수님, 이원길 교수님, 예민해 교수님, 윤영국 교수님, 전재복 교수님, 정준모 교수님, 조동규 교수님, 조동택 교수님, 조태환 교수님께서는 호텔로 바로 오셔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모두 우리 58회 동기들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 권정윤 교수님과 전재복 교수님께서 직접 색소폰 연주와 노래를 해주셔서 더욱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2000년 6월부터 만 15년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베데스다 병원을 설립, 의료봉사활동 중에 있는 임현석 동기는 동영상으로 참석하신 교수님에게 인사드리고 동기들에게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사은회 행사를 마치고도 동기들은 생맥주를 마시며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다음날 5월 30일 남해로 1박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

예보가 있어서 걱정이 되었지만 대구에서 출발할 때는 약간 흐린 날씨 정도였는데 남해 상주해수욕장 근처 횟집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할 때는 비가 제법 많이 와 한려수도 유람선 타는 일정이 기상관계로 취소되었지만, 이를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오랜만에 보는 동기들과 여유있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많아져 더 좋아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 다랑이 마을을 관광 후 남해 힐튼 리조트에서 방을 배정받고 배성곤 동기 사회로 저녁 만찬을 겸한 Reunion party가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한 게임과 더불어 사회자가 참석한 동기를 불러내 개인이 제출한 추억의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며 마이크를 잡고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모두 타임머신을 타고 25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찬 장소의 시간 관계상 모든 참석자에게 시간이 돌아가지 않음을 아쉬워했는데 시간만 충분했으면 밤을 새울 기세였습니다. 전문사회자를 부른 것도 아닌데 가수나 연예인을 초청한 것보다 훨씬 즐거웠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자는 시간도 아쉬워 자리를 옮겨서 간단하게 맥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인에서 개업하고 있는 채용호 동기는 대구에 병문안을 위해 들렀다가 밤늦게 도착하는 열정을 보여 줬습니다.

5월 31일 아침은 전날과는 달리 오전부터 화창한 날씨여서 일부는 골프를 치고 나머지는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물건리 자연 방풍림을 관광했습니다. 골프 코스도 좋고 주위 경치도 아름다웠지만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그 시절들

의 기억들, 그 기억들에 비친 지금 모습들이 훨씬 중요했으니까요.

골프 및 관광을 마치고 같이 점심식사 후 이제 헤어질 시간. 57회 선배님들께 행사준비를 위한 조언을 구하려 만났을 때 헤어질 때 눈물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감이 안났는데 막상 행사를 마치고 작별할 시간이 되니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동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부군 임현석 동기와 같이 베데스다 병원을 설립,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최영단 동기, 미국 버지니아 의대 방사선과 교수로 있는 박오환 동기도 먼 길을 마다 않고 참석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전합니다. 모교방문 행사 후 아산병원에 있는 손병호 동기와 수원에 개원하고 있는 박용주 동기가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임현석 동기와 최영단 동기가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 베데스다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모교방문 추진위원장을 맡은 정병용 동기, 총무를 맡아 수고한 황정환 동기, 여성동기를 대표해서 열심히 도와준 윤길숙 동기, 박서정 동기, 골프행사 진행을 맡은 박종훈 동기, 몇 년째 계속 재무를 맡고 있는 한병인 동기, 궂은 일은 도맡아 해준 장덕진 동기, 영주에 있지만 준비 월례회마다 계속 관심을 보여주며 맛있는 음식을 택배로 보내준 김경훈 동기, 그 외에도 소리없이 도와준 많은 동기들 덕분에 무사히 그리고 성대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84학번 58회 동기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서 30주년, 50주년까지 함께 가봅시다. 파이팅!!

부산지부 제공 _ **최광호**(47회) 동문

확대이사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5년 3월 27일 오후 7시, 서면미송초밥

참석 : 15명(존칭생략)

박노삼(39회), 김성학(41회), 박재우(43회), 류현열(46회), 정준헌(46회), 최광호(47회), 이대운(47회), 조승호(47회), 정만홍(47회), 이영택(48회), 이용석(48회), 손혜경(48회), 강성희(51회), 함소희(52회), 김중규(53회)

토의사항

1. 정기총회 사용경비 검토 및 보완점 논의
2. 총회시 협찬회원에 대한 감사표시 방법논의
3. 경의금고회원 신규모집 홍보 및 가입독려
4. 봄산행 대비 행사준비 논의

–장소 : 황령산 2015년 5월 10일(일)

–사전답사 : 2015년 4월 5일(일)

부산지부 확대이사회

봄산행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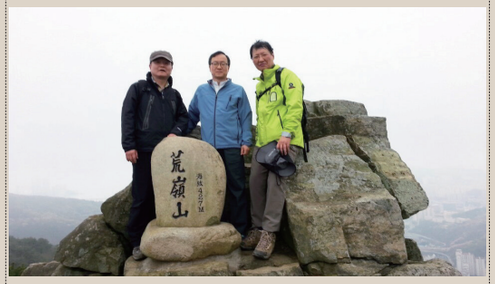
일시 : 2015년 5월 10일(일) 오전 9시 집결

장소 : 황령산(경성대학 입구~바람고개~봉수대~청소년수련원~푸른산장)

황령산은 지하철2호선과 연계해서 근접성이 용이하고 해발 427m의 완만한 산행코스와 더불어 은은한 삼나무 군락의 향취와 광안리 해수욕장의 광안대교를 조망하면서 숲속으로 걸을 수 있고, 언제 어떤 사연으로 누군가가 조성했는지 모르지만 길 양측에 늘어서 있는 무수한 돌탑을 볼 수 있는 코스가 있어 여러 동문과 더불어 하루를 같이 함에 절대 후회가 되지 않는 코스였다.

참석 : 32명(존칭생략)

김희교(28회), 심제용(31회) 부부, 최명부(33회), 김수길(34회), 고경환(34회), 박노삼(39회) 부부, 박진현(39회), 김성학(41회), 이재우(41회), 장한기(41회), 김대석(43회) 부부, 박재우(43회), 강신수(44회), 정기묵(45회), 고병구(46회), 최광호(47회), 이대운(47회), 조승호(47회), 손태환(47회), 이영택(48회), 이용석(48회), 이재성(49회), 황영표(53회), 김광수(54회), 이상화(54회), 정규식(54회), 편도철(54회), 김상귀(59회), 배수찬(64회)



사전답사 황령산 427m

등반대회 뒷풀이

정년퇴임

김재도(44회) 동문, 고신의대 복음병원 정형외과 2015년 8월 31일

회원 경조사

신세종(49회) 동문, 모친상 2015년 3월 25일(수)

조정현(49회) 동문, 모친상 2015년 4월 13일(월)

조정현(49회) 동문, 장녀 결혼 2015년 4월 18일(토)

유홍재(48회) 동문, 모친상 2015년 6월 20일(토)

김방영(18회) 동문, 본인상 2015년 8월 25일(화)

채광수(46회) 동문, 장남 결혼 2015년 8월 30일(일)

울산지부 제공 _ **김규호**(61회) 동문

2015년 3월 17일 펠리체 컨벤션에서 지용철 동창회장님과 박매자 의전원장님을 모시고 동문 60여 명이 정기총회 행사를 가졌습니다. 신임 이명우 회장님이 선출되어 더 나은 경북의대 울산동창회를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하셨습니다. 6월 21일은 친선 골프대회가 보라CC에서 경북의대 보라CC 동호회 도움으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우승은 지소영 동문, 준우승은 윤현철 동문, 메달리스트는 이성희 동문이 그외 다양한 시상이 있었고 재울 경북대 동창회에서도 기념품 증정이 있었습니다. 시상식에는 멀리서 지용철 동창회장님이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동해지부 제공 _ **이인태**(56회) 동문

2015년 동해지부 춘계야유회 행사가 5월 31일 일요일에 열렸습니다. 오전 행사는 골프조와 트레킹조로 나눠서 열렸는데 골프조는 오션힐스CC에서 9조, 46명이 참여하였고, 트레킹조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생태공원에서 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우미향 식당에서 오전 행사 때 참석 못한 동문들도 함께 하여 점심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식사 후 동해지부 권세일(49회) 회장의 인사말씀과 지용철 회장님의 격려사 금일봉 전달이 있었으며 이후 건배제의, 찬조금 전달, 신입회원 인사, 경품 및 행운권 추첨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끝으로 권세일 회장님이 준비한 기념품을 하나씩 동문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29회 제공 _ **김두희** 동문

5월 16일 '대구 호텔 노보텔'에서 졸업 제54주년 기념 총회를 했다. 90명 졸업에 49명 살아있다. 그 분포는 대구 14명, 부산 10명, 서울 8명, 경북 4명, 경남 3명, 충남 1명, 재미주 9명이다. 그 중 18 부부가 모였다. 우리들이 어떤 그룹인가!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송문원 군이 재미 총동창회에 참석하고 그 광경을 보여주고 김두희가 모교의 역사 중 숨겼던 것 그리고 숨겨진 것들을 짚었다.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지만 알기나 해야지!

그리고 이근후 군의 특강을 들었다. 부탁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나는 죽을 때까지 즐겁게 살고 싶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보다 「오늘은 내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다」라는 책을 그 후속으로 내고 그 내용 10가지 '훈'을 들려준다. 역시 80대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 어떤 '훈'은 마음이 저리게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특강하는 이근후

인생 10훈

1. 관심 : 해주기보다 알아주기
2. 노년 : 자유가 허락된 시간
3. 비교하기 :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나은가?
4. 올타 : 첫걸음 떼고 한걸음 한걸음
5. 울타리 : 안에서 보면 나를 가두고 밖에서 보면 나를 보호하는 것
6. 유머 : 미소로 마음이 통하는 대화
7. 인생 :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8. 인연 : 당신은 나의 세상, 나는 당신의 세상
9. 죽음 : 친해지면 두렵지 않다
10. 행복 : 지금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분

그리고 김천의 이재춘은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을 페북에서 보았다. 그런데 최근에 재미주 동기 신영식, 정운표, 김진길은 먼저 천국으로 떠났다. 언젠가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리~

참석한 전체 동기 좌로부터(존칭 생략)
송문원, 정준모, 박진상, 최봉락(강태생 부군), 박병덕, 송화복, 박영춘, 백영수, 이진관, 박상곤, 한용섭, 김광덕, 김홍웅, 박자근, 안원호, 남상하, 김두희

17명인데 박희숙은 차시간 때문에 기념촬영에 참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가 80대라 하겠는가! 야 너무 젊지 않는가? 앞줄은 영원한 반려자 아직 한참 때라~. 이근후의 강의 내용에 부응하리만치 오늘이 제일 즐거운 날이라~ 뭐 생각은 자유(?) ㅋㅋㅋㅋ

팔십령 고개

동소석

황금빛 노을 걸린 팔십령 고개
지금 나 어디쯤 가고 있나
참 오래토록 천천히 걷고 싶네.
내달리는 일월일랑 그냥 가라하고
수런대는 들꽃들 손잡아 주면서
너울대는 떡갈나무 춤사위 함께 흔들며 가고 싶네

얕은 햇살에도
낡은 목도리 풀어헤치고
온몸으로 신열 건져 올리며
젊은 날 지새워 걷던
아련한 그 봄의 밤길 가 듯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싶네
발길 따라 즐겁게
동행하는 그리운 얼굴들
달빛처럼 흐르는 추억의 파노라마들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며
손 맞잡고 먼 후일 약속은 못할지라도
다음번에도, 그 다음 번에도
지금 모습 그대로의
얼굴들을 찾아가고 싶네

뭉게구름 쉬어가는 오르막 저어기로
어깨 밀며 당기며 모롱이 돌 때마다
청솔 잎 잠 깨우는 빗물소리
알싸한 산바람에 내 핏줄 안으로도
새 피가 뜨겁게 돌고 돌아
마른 팔다리 마디마다 다시 힘줄 용트림이 틀어
노을 불타는 팔십령 고개
참 오래토록 걸어 오르고 싶네

노트 : 계절은 어김없이 초록의 힘으로 "나와서 걸어보라"며 꼬드기고 있습니다. 애기똥풀이며 제비꽃도 손짓을 합니다.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나 걸음이 무뎌지고 숨이 가빠지네요. 왠지 자꾸 지나온 길이 되돌아 보이네요. 원근에서 모인 동기 여러분, smart aging 강의 듣고 아름다운 황혼 그림을 즐겁게 그려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34회 제공 _ **정영식** 동문

2015년 동기회 조직

회장 **김유문**
총무 **정영식**
서울회장 **김세호**
재미회장 **박내홍**
재미총무 **박대선**

영남지역 동기회 모임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29일(토) 17시~20시, 안동국시
참석인원 : 대구–김원재, 김유문, 김충남, 오상유, 이원무, 정영식, 편영식, 부산–고경환, 김수길, 포항–최호섭, 경주–강행복

50주년 기념 준비 진행사항 보고

일시 : 2016년 5월 5일~10일
일정 : 2016년 5월 5일 – 환영회 만찬(호텔수성)
5월 6일 – 본교방문 및 오찬 → 시티투어 → 기념만찬(호텔수성)
5월 7일~10일 – 동해안 행복 여행
*재미 17명 회원부부 참석 예정(30명)

동기회원 근황

「서울」 **이두형** : 대전 건양대학 성형외과 석좌교수
「포항」 **최호섭** : 장성요양병원장, **손위익** : 간호나라요양병원
「부산」 **김수길** : 한빛요양병원, **고경환** : 동래유유요양병원
「대구」 **이원무** : 안과수술 회복 후 모임에 참석, 감사
「미국」 **이재철** : 7월 29일 소천(뉴욕에서 장례식 거행), 재미 회원과 한국 회원들이 조의금과 위로
권석찬 : 경북의대 재미 동창회장으로 선출
장춘식 : 걱정했던 병환에서 많이 쾌유됨
백헌(백관) : 그동안 소식이 단절되어 동창회 명부에서 빠진 친구를 드디어 찾음, 뉴욕 및 시카고에 있는 친구들이 병문안(16시간 운전)

연락처 : 8280 high pointe dr., #16g
Newburgh, IN 47630
812-853-3085
812-449-0312(cell)
hurnbaek@att.net

어려움에 처한 백헌 회원을 위해 재미동기 회원 27명이 11,000$ 성금을 전달함. 감사. 감동.

36회 제공 _ **강병조** 동문

36회 동기회는 분기별로 모임을 하고 있다. 8월 5일 영남별장식당에서 개최된 이번 모임에는 미국 뉴욕에서 홍대순이 일부러 참석하러 왔다. 오는 길에 필리핀에 잠시 들러 선교활동도 좀 하고 왔단다. 미국 동기들 소식을 들어보니, 동부지역에서는 많은 동기들이 은퇴를 하여 자유를 만끽하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하였다. 플로리다에 모여 골프도 즐기고 세계여행도 떠나고,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동기들은 아직 현역으로 활동 중이란다.

우리나라 동기들은 아직까지 모두 현역들이다. 송풍호는 늘푸른요양병원(경산시 경안로 158)을 새로 개원하여 환자진료에 정신이 없다. 백철홍은 안동교도소 의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우영은 의사보다는 개신교 목사로서 목회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나머지 친구들은 자기 병원에서 여유롭게 환자진료를 하고 있고, 봉직의들은 젊은 세대에 밀려날까 노심초사하며 정열을 불태우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철없을 때 해방을 맞고, 6·25사변을 거쳐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 동기들. 반은 미국으로 가고, 반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으나 끝까지 힘내어 멋지게 살자. 파이팅!

8월 5일 대구 동기들의 모임 사진

미국 동부지역 동기들의 플로리다 골프모임

43회 제공 _ **조영철** 동문

2015년은 저희 43회 동기들의 40주년 행사의 해입니다. 5년마다 하던 해외여행 행사를 이번에는 국내에서 하기로 뜻이 모아져 신라고도 경주(현대호텔)에서 2박3일간 가졌습니다. 해외 행사 때보다 훨씬 많이, 동기생 23명(김건우, 김대석, 김세동, 남수현, 박노문, 박동철, 박봉훈, 백태원, 유용운, 육순황, 윤덕구, 이광윤, 임정근, 장사상, 정수기, 정화선, 조동규, 조병권, 조성경, 조영철, 조원현, 지용철, 최시호)과 17명의 사모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간략히 행사를 소개하면 첫째 날은 만남의 기쁨 속에 여흥과 알코올에 만취되어 밤을 보냈습니다. 몇몇 동기분들은 그동안 조용히 즐겨오던 취미생활들을 이번에 보여줘서 동기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성악을 하는 유용운, 이광윤, 정화선, 조동규, 조원현 님들 앞으로도 계속 즐기시어 다음 기회에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기대합니다. 무대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김대석 부부와 최시호 부부의 Dance는 감상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동기생들의 자제분들의 출연이 자랑거리였습니다. 해외에서 왕성하게 음악활동하고 있는 김건우 동기의 딸(현이 양)과 조원현 동기의 아들(정우 군)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에 출연하여 축하 노래를 불러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둘째 날은 경주시 문화재해설사의 안내로 석굴암, 문무대왕릉, 주상절리 등을 관광하는 시티투어를 가졌고 마지막 날은 골프팀과 산책팀으로 나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모두 건강관리 잘 하고, 앞으로 더욱 자주 만나기를 다짐하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회원동정 및 경조사

정년퇴임
이광윤(영남의대 약리학) 2015년 2월
장운하(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2015년 8월
유용운(대구가톨릭의대 일반외과) 2015년 8월 25일

혼사
조영철 동기 장남
김세동 동기 장남
이길모 동기 장남
조동규 동기 차남
배연수 동기 장녀

조사
이길모 동기 모친상
방용준 동기 모친상
우성구 동기 부친상

49회 제공 _ **이만진** 동문

자랑스럽게도 임재양 동기가 대구 36번째, 전국 726번째로 아너소사이어티(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모임)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4월 11일(토)에는 1박2일 일정으로 중년들의 경주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전국대표 동기 10명이 경주 힐튼에 모여 고상한 식사와 더불어 두보의 '곡강'에 나오는 인생칠십 고래희도 읊조리고 노래방에서는 7080에서부터 최신곡까지 섭렵하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자리를 옮겨서는 밤이 지새도록 숫자놀이를 즐겼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을에는 연주가 가능한 동기들의 작은 음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장소와 연주자는 준비가 되었

으며 연습만이 살길입니다. ㅎㅎ
계획대로 잘 성사되어 풍성하고 따스한 결실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54회 제공 _ **손효돈** 동문

54회 동기회 골프대회

2015년도 54회 동기회 골프대회가 지난 7월 12일 인터불고 경산CC에서 대구·경북 및 부산과 포항에서 24명의 동기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장마철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골프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고 오래동안 만나지 못한 동기들도 만나서 회포를 풀고 대화를 나누면서 운동으로 하루를 보낸 뜻깊은 행사였다.
시상식 및 회식은 골프장 내의 만찬장에서 열렸고 이날 대회 상품은 백효종 회장이 사재를 털어 준비하였고 행사 진행은 사정상 불참한 박순원 총무 대신하여 부회장인 손효돈 동기가 맡았다.
우승은 정두선 동기가 차지하였고 메달리스트는 76타의 안중걸 동기가 수상하였다. 그 외 준우승은 이동현, 3위 김건오, 롱기스트 채영수, 니어리스트 홍성범 동기가 각각 수상하였고 내년 대회를 기약하였으며, 가장 스코어가 좋은 안중걸, 이동현, 채영수, 최진교 동기가 2015 총동창회 골프대회 참가선수로 선발되었고 지난 8월 23일 치뤄진 의대동창회 골프대회에 참가하였다.
최선을 다하였지만 입상에는 실패하였고 대신 이동현 동기가 니어리스트 상을 수상하여 54회의 최면을 세웠다. 참고로 의대동창회 골프대회는 54회 동기인 사업이사 최동호 동기가 진행을 맡았었다.

경조사

윤정수 동기 장녀 결혼식 2015년 8월 22일 울산 우정성당
김덕윤 동기 부친상 7월 11일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정동일 동기 부친상 7월 24일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식

자료 _ 교무부원장 **최제용**

의예과·의전원 신입생 학교생활 : 교학간담회

2015년과 2016년은 의전원생과 의예과생을 함께 선발하기 때문에 입학식, 교학간담회 등 여러 가지를 두 번씩 하게 된다. 2015년 2월 16일 교학간담회가 개최됐다. 비록 나이 차이는 있지만 동아리나 여러 학교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같은 대학 새내기로 힘찬 대학생활을 시작하였다.

중앙강당에서 교학간담회

교직원 체육행사

의과대학은 학생들, 대학원생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보살피고 찾아 처리하는 부서가 교직원들이 근무하는 행정실이다. 매년 한 번씩 심신을 단련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뜻에서 교직원 행사를 한다. 올해는 4월 10일, 구미 금오산 산행을 택했다. 금오산 꼭대기에 화전민들이 살던 터가 있다. 옛 사람들의 삶의 일면을 보면서 친목을 도모하였다.

행운의 밤 및 25주년·50주년 홈커밍 행사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행운제가 열리지 않았다. 올해는 5월 27일, 예전처럼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행운제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선후배 동문들, 학생, 교수, 외부손님들(미 8군 군의관들)과 함께 즐거운 '행운의 밤' 행사가 열렸다. 아울러 5월 29일 열린 25주년, 50주년 졸업생들의 홈커밍으로 더욱 가슴 따뜻하고 뿌듯한 5월의 교정이 되었다.

졸업 25주년 모교 방문

제18회 행운의 밤

6·25전쟁 참전 전몰학우 추념식

히포크라테스 동상 옆에 사각 비석 하나가 있다. 이 비석에는 한국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가하여 순국하신 전몰학우들의 거룩한 얼이 아로새겨져 있다. 올해는 동창회장님, 대구·경북 각 의사회장님, 병원장님, 의전원장님을 비롯한 원장단 그리고 학생대표들이 참가하여 6월 5일 추념식을 거행하였다. 비 내리는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어서인지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더욱 느끼게 하였다.

6·25전쟁 참전 전몰학우 추념식

하계 의학교육세미나

매년 동계, 하계 교육 세미나가 열린다. 대구를 떠나 다른 지역의 역사와 풍경을 보면서 교육 세미나를 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경제 사정과 편리성을 들어 올해는 7월 10일 인근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하반기에 있을 평가인증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학교 상황 그리고 성희롱 및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과 토의가 있었다.

하계 의학교육세미나

평가인증 보고서

의학교육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누가 확인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의사라는 직업은 학생시절부터 스스로 점검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는 능력이 특별히 더 필요하다. 즉, 자정작용과 책임감이 투철한 프로페셔널리즘이 요구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전국 의과대학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매번 평가 항목이 시대 변화에 맞게 조금씩 변경되어왔다. 올해는 우리 대학이 포스트 2주기 의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을 차례이다. 평가 내용은 '대학 운영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등 6개 영역에 97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문항 중에는 '대학 발전을 위한 동문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있는가?',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은 적절한가?'도 있어 학생교육이 동문과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보고서(200 페이지)는 그동안 차근히 준비해온 전임 원장단과 많은 교수님들의 노력을 집결한 것으로 7월 말 평가원에 제출했다. 평가단은 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11월에 현장 실사를 하게 된다. 12월이나 내년 초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의전원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동창회에서 2015학년도 2학기 장학금 2억 1천만 원을 8월 24일 수여식을 통해 의전원 의학과 37명, 의과학과 2명, 의과대학 의예과 2명의 학생에게 전달하였다.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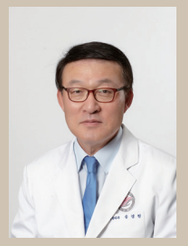
퇴임교수(8월 31일) : **조동택**, **박인규**, **이성국**

신임교수(2015년 9월 1일자) : **강민규**(방사선 종양학), **김기수**(예방의학), **김지윤**(소아과학), **신민상**(미생물학), **이재만**(생화학·세포생물학), **정진향**(외과학), **허성재**(이비인후과학)

기타

– 2월 27일 **배재성** 교수 범석 논문상 수상
– 8월 21일 후기 졸업식
– 8월 29일 의전원 수시모집 면접 평가

봉사정신으로 의사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송경원**(41회) 동문



Q1. 안녕하십니까? 요즘 근황부터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A. 우선 훌륭하신 선배, 동문도 많은데 제가 동문탐방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강동성심병원은 올해로 근 30년을 맞이하는 오랜 역사의 병원입니다. 부족하나마 5년 전부터 병원장을 맡아 2014년 11월까지 병원의 안팎을 모두 바꾸는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현재 공사를 무사히 마쳐 최첨단의 의료기관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명예교수로서 후학 양성과 척추질환 관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Q2. 사촌까지 합하면 종합병원을 하나 만들어도 될텐데, 교수로서 평생을 보낸 소감이 어떠하십니까?
A. 일가를 합치면 근 20여 명이 될 것 같네요. 백부이신 송명도 산부인과를 주축으로 여러 과를 전공한 분들이 많아, 어릴 적부터 선택의 여지없이 의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립의료원에서 훌륭하신 스승님의 지도하에 척추를 전공하여 지금까지 한림의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가르치면서 성장하고 제자는 스승에게 배움으로써 진보한다는 말과 같이 제자에게 좀 더 열심히 못 가르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쪽에서 나온 푸른 물감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격언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Q3. 새로 교수생활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A. 사회에서 보는 의사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삶은 반드시 희생, 봉사정신을 품고 있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공의를 시작한 미래의 후학들은 신념과 열정이 남달라야 하며, 의사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환자를 내 가족처럼'이라는 격언을 항상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Q4. 의사들이 사회지도층으로서 사회적으로 좀 더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 목숨을 다루는 의사는 목숨을 내놓고 일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내 목숨이 중하듯, 내 손을 거치는 목숨이 얼마나 중한지를 가슴에 새기고 치료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앞에 두고 사회적 문제든, 조직적 문제든, 구조적 문제에 맞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오면, 내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타인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우리 의사들이 몸소 보여주어야만 요즘 같이 목숨을 쉽게 버리고, 해하는 세상에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Q5. 인생 후반전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워두셨습니까?

A. 정년퇴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제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연희동 성당에서 사목회장을 맡아 봉사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재능기부를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Q6. 선생님의 가정사는 어떻게 되시며, 동문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A. 산부인과를 전공한 집사람은 이대 의대의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후 현재도 열심히 사회에 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위는 서울아산병원 안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며느리는 세브란스 졸업 후 세브란스에서 호흡기 내과 전임의 중입니다.

과거 학생회장 모임인 서울복현회(법학과 1975년도 졸 김창현 회장)를 통하여 모교 소식 및 동문 유대관계를 나누고 있으며 최근 15명 정도 참석하고 있고 모교복현회와의 합동모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경원 동문 이력

琪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정형외과
전문분야(세부전공) 척추 관절

학력

1973년 경북의대 학사졸
1977년~1979년 연세의대 석사
1979년~1982년 연세의대 박사
학위논문 제목 : dextran sulfate DS500과 마우스에 있어서 결핵균 감염에 미치는 영향. 연세의대 미생물학교실 – 김주덕

경력

1982년 국립의료원 정형외과 전문의
1982년 국립의료원 staff
1989년 한림의료원 춘천성심병원 부교수
1990년 한림의료원 강동성심병원
1993년 한림의료원 강동성심병원 교수
1998년 한림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장
2002년 한림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정형외과 과장
2003년 한림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약사 위원장
2006년~2010년 한림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정형외과 주임교수
2010년 9월~2014년 12월 강동성심병원장

해외연수

1983년 3월~1983년 9월 독일 척추 연수 6개월
1993년~1994년 AO SPINE FELLOW SWISS 연수
2002년~2003년 미국 RUSH 척추 연수

학회 및 회원

1992년 정형외과 척추학회 감사
1995년 정형외과 척추학회 편집위원
1995년 정형외과학회 의무의원
2003년 정형외과학회 이사
2010년 심평원 척추 심사
2013년 서울 병원협회 의무이사
정형외과학회 정회원
골절학회 정회원
척추학회 정회원
북미척추외과회원
AO척추학회 Delegate

적극적 사회교류로 의사의 자긍심을 높이는

김성기(58회) 동문

Q1. 선생님은 동기들보다 좀 늦게 입학하는 바람에, 동생 같은 동기들과 같이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해 졸업 25주년을 맞이하셨는데, 감회가 어떠신가요?

A. 벌써 25년이 흘렀다고 생각하니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매우 드문 경우지만, 제가 육군 사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것이 1983년 4월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후 6개월간을 평생 처음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덕에 84학번으로 경북대 의예과에 입학해서 무사히 모든 과정을 마치고 명문 경북대 의과대학 동창회 멤버가 되어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대부분의 동기생들보다 6년 늦게 입학을 해서 당시는 동기생들이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얼마 전 25주년 행사장에서 동기생들을 만나보니 이제 모두 50대 초반의 멋진 신사, 숙녀가 되어있어 세월의 흐름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늦깎이로 입학해서 공부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형님으로 예우해주며 제가 무사히 6년 만에 졸업하도록 도움을 준 당시에는 어렸던(?) 동기생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Q2. 동기 중에서 장학기금을 가장 많이 납부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인도 알고 계신가요?

A. 제가 모교를 통해 받았던 것에 비한다면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꾸준히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대구지역 고교평균화 1회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제가 졸업한 청구고등학교가 당시에는 명문학교가 아니었고 동창회 등이 많이 열악했었습니다. 당시 어떤 계기로 고교 동창회 일에 깊숙히 개입하게 되었고, 우연히 동창회 장학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꾸준히 참여해 오다가 드디어 올해 초 정식으로 총동창회 장학재단을 출범시키는데 나름 일조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의과대학 동창회 활동과 장학기금 모금에 참여가 저조한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더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등 대부분(?)의 지출은 모두 부부간 상의 하에 집행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힙니다.

Q3. 부인과는 예과 때부터 소문난 CC였고, 두 분 다 6년 전면 장학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인 자랑 좀 해보세요.

A. 저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겨냥해 주시는군요. 사실 제 아내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미인이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살림 잘 살고, 부지런하고, 애들 잘 키웠고, 게다가 검소하기까지 한데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니 어디 한군데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 어린 동기들에게 아직도 날강도(?)라는 이야기를 달게(?)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싸움 등에서는 저 나름대로 일방적으로는 밀리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둘 다 학생회비만 내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고마움과 빚진 마음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를 조금이라도 더 갚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Q4. 재주가 많으실 것 같은데, 취미는 무엇인가요?

A. 제가 시골에서 초중등학교를 다닐 때 탁구와 연식정구 선수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학교 2학년 때 대구로 전학을 온 이후로 당시에 이에리사 때문에 전국적으로 탁구 붐이 일고 있어서 탁구를 많이 쳤던 기억이 납니다. 의과대학 행연제 때 탁구 종목에서 우승해서 상을 받았던 기억도 나네요. 그리고 고교 졸업 후 한동안 당구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보낸 기억도 있고요. 개원 이후에는 골프에 빠져서 한때 언더파를 목표로 노력한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좀 시들해졌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생각해서 등산을 자주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 주변에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소주 한 잔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과음을 해서 잔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고교 동기들과 앞산 야간 산행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문학에 관심이 있어, 관련 서적을 좀 읽어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공 분야의 공부만큼은 취미라고 해도 될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Q5. 동창회가 동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A.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원론적으로 간단하게 답변 드리자면, 동창회가 동문들에게 다가가려면 무엇보다도 동창회가 동문들에게 필요한 무엇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경북의대 동창회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뭔가가 있거나, 동창회에서 도움이나 즐거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창회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다가가 동창회를 좀 더 친밀하게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모임이든지 조직이 잘 갖추어져야 하는데, 지금보다 좀 더 세밀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생이 많아 동창회에 관심을 가질 겨를조차 없는 젊은 회원들에게는 경험이 많은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해 주는 자리 등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6. 의사들이 사회지도층으로 사회적으로 좀 더 존경받고 인정받기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선 생각나는 몇 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사는 진료실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과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환자에게서 존경받을 수 있는 인품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저수가 상태에서는 많은 수의 환자를 보아야만 하는 현실에서 모든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과 친절한 태도를 보이기만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들어도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저수가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의사들이 의사들만의 사회에서 벗어나서 여타 사회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합니다.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시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오해를 불식시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잘못된 권위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권위는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의 열린 세상에서 환자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설 곳이 없어집니다. 넷째, 'Noblesse, Oblige'해야 합니다. 요즘 의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타 어떤 직업에 비해서도 보람 있고 멋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은 서로 상대적입니다. 의사들 스스로 마음이 부자가 되어 베푸는 삶을 살면 사회가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삼성내과의원 **김성기** 동문

김찬수(31회) 동문, 'The State Journal–Register' 기고

김찬수(31회) 동문은 일명 'Abe Lincoln's Newspaper'로 알려진 'The State Journal–Register' 8월 2일자에 기사를 기고하였다. 요지는 음식보다는 운동을 통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가령 65세의 일반적인 어르신은 77.7세까지 12.7년을 건강하게 더 살 수 있지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함으로써 83.4세까지 18.4세를 건강하게 더 살 수 있다. 김찬수 동문은 「Just My Two Cent」라는 책도 출간했다.

정성광(47회) 동문, 네팔 돕기 성금 전달 및 안보현장 견학

정성광 경북대 의무부총장은 5월 22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를 방문해 네팔 지진 재난 구호 지원을 위한 성금 1천7백여 만 원을 전달했다. 경북대 교직원들은 네팔 지진 피해국민들을 돕기 위해 1천8백여 만 원을 모금했으며, 이 중 1천7백여 만 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전달했다. 그리고 나머지 1백만 원은 지진으로 피해 입은 경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생인 네팔 유학생 1명에게 전달했다.

또한 정 동문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안보 의식 제고를 위해 재학생, 교직원 30여 명과 함께 8월 13일~14일 1박2일 일정으로 판문점 일대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판문점,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을 돌며 분단의 현실을 체감하고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견학은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분단 현장을 둘러보고 전쟁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안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왕(51회) 동문, 캄보디아 왕실 훈장 수상

김재왕 동문은 경북의사회장으로서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료봉사와 캄보디아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캄보디아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인 '사하메트레이 훈장(The Royal Order of Sahametrei Medal)'을 받았다. 이 훈장은 캄보디아 국왕의 승인을 받아 수여되는 훈장으로 외국의 협력관계 및 캄보디아 국민의 이익을 크게 증진시킨 사람에게 수여된다.

사하메트레이 왕실 훈장 수여식은 지난 10월 17일(토) 오전 9시, 호텔금오산에서 캄보디아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과 훈센 총리를 대신해 속안(Sok An) 관방장관 겸 부총리가 참석해 수여식이 이루어졌으며, 수스 야라 및 속 속칸 국회의원과 캄보디아 로얄 아카데미 KlotThyda 총장 등 관계자가 함께 배석하여 축하하였다.

김인겸(54회) 동문, 대한심장학회 '2015 아스트라제네카 학술상' 수상

모교 약리학교실 김인겸 교수는 2015년 10월 16~1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9차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15 아스트라제네카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 논문은 미국 약리학회에서 발행

하는 'Molecular pharmacology' 5월호에 게재한 "Histone Deacetylase Inhibition Attenuates Cardiac Hypertrophy and Fibrosis through Acetylation of Mineralocorticoid Receptor in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s"이다. 위 논문은 지난 5월 이미 이 달의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상금은 300만 원이며, 경북대학교 발전기금(장학금)으로 기부했다.

● 경상북도의사회 동정

2015년 메르스 확산방지 유공자 기관표창 수여

경상북도의사회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시 효과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처로 감염 확산 방지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도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8월 4일(화) 오전 11시, 경북도청 접견실에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단체표창을 수여받았다.

이날 기관 및 단체표창에는 본회를 비롯한 경상북도약사회, 포항시 북구·경주시·김천시·안동시·구미시보건소 7곳에 기관표창을, 동국대학교경주병원·김천의료원·안동의료원 관계자 5명이 개인표창을 수여받았다.

제4회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기금 마련 골프대회서 31,070,000원 봉사기금 모금

경상북도의사회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과 기부문화를 통해 존경받는 의사상을 구현함은 물론 소외된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한 의료봉사기금을 마련하고 회원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루기 위해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골프대회와 함께 진행된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모금은 총 86명의 회원이 봉사기금 후원에 참여하여 지난해보다 640여 만 원이 늘어난 총 31,070,000원(연간)이 적립되었으며 특히 김재왕 회장(500만 원)을 비롯한 대의원회 김광만 의장(200만 원), 의협 정능수 감사와 이국희 원장(240만 원) 등은 고액 후원금을 기부하였으며, 참석한 회원 모두 십시일반 동참하여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 기금 마련의 취지를 한층 살리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5월 2일	**이두진**(46회)	차녀
5월 3일	**박용훈**(45회)	장남
5월 9일	**윤태현**(46회)	장녀
	김효석(49회)	장녀
5월 30일	**류수현**(48회)	장녀
6월 7일	**박영석**(44회)	차녀
6월 20일	**오천석**(44회)	차남
	천종율(49회)	장녀
7월 4일	**김재황**(50회)	장녀
10월 18일	**김정철**(50회)	장남
10월 24일	**강동기**(50회)	장남
10월 24일	**이창호**(47회)	차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월 13일	**우병철**(55회)	모친상
4월 24일	**장원삼**(50회)	장인상
	조재영(51회)	부친상
	권순재(71회)	장인상
4월 25일	**김옥동**(40회)	장인상
	최재성(51회)	모친상
	김영환(61회)	부친상
4월 27일	**김정규**(63회)	부친상
4월 30일	**이충기**(51회)	모친상
5월 3일	**하미희**(57회)	부친상
5월 11일	**김형진**(48회)	모친상
5월 12일	**김현태**(69회)	장인상
5월 14일	**박민희**(58회)	부친상
5월 24일	**방용준**(43회)	모친상
5월 29일	**이미경**(71회)	모친상
6월 2일	**서영호**(39회)	모친상
6월 3일	**이용직**(67회)	장모상
6월 4일	**박호용**(59회)	부친상
6월 5일	**박인**(76회)	부친상
6월 7일	**유선오**(59회)	모친상
6월 17일	**김성희**(59회)	부친상
6월 24일	**서영익**(58회)	부친상
6월 27일	**정윤진**(70회)	부친상
6월 30일	**우성구**(43회)	부친상
7월 1일	**이광자**(60회)	부친상
7월 8일	**유은상**(63회)	장인상
7월 11일	**김창윤**(48회)	부친상
7월 13일	**정제명**(42회)	모친상
	이동훈(47회)	장인상
7월 24일	**정동일**(54회)	부친상
7월 29일	**임동규**(46회)	장모상
	김영우(63회)	모친상
8월 1일	**최병희**(46회)	부친상
8월 13일	**김진모**(42회)	본인상
8월 27일	**임영근**(46회)	모친상
9월 3일	**김기호**(50회)	부친상
9월 14일	**김태준**(38회)	본인상
9월 20일	**박건욱**(58회)	장인상
	박준모(65회)	부친상
9월 27일	**이진식**(52회)	모친상
9월 30일	**소준현**(57회)	부친상
10월 4일	**박준형**(60회)	모친상
10월 6일	**강덕식**(39회)	모친상
10월 9일	**고삼규**(51회)	부친상
10월 11일	**김경수**(51회)	장인상

43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변하지 않는 찰주 하나 품으소서

글 _ **최시호**(43회) 동문

43회 동기들은 2000년 졸업 25주년 홈커밍 행사를 치른 후 30주년에는 일본, 35주년에는 대만으로 해외여행 기념행사를 하였으나, 40주년 행사는 국내에서 가지기로 했다. 준비위원으로 조병권 회장, 조영철 총무의 회장단과 백태원, 유용운, 조동규, 조원현, 최시호 동기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동기 23명과 부인 17명, 자녀 4명 총 44명이 참석하여 2박3일 동안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첫째 날 : 축하 음악회 및 댄스 스포츠

2015년 5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어느 봄날 저녁이이보다 더 밝으랴. 부부동반으로 속속 도착하는 동기들. 60대 중반에 들어선 동기들의 머리에는 흰 눈이 가득하나 서로 만나 악수를 하며 환하게 웃는 그 웃음이 화창한 봄 날씨만큼 싱싱하다. 만찬장에는 현악 4중주의 음악이 흐르고 음식을 앞에 두고 건네주며 따르는 술잔에도 반가움이 함께 담기며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회장인사, 경과보고, 건배제의의 공식 행사를 마친 후 축하공연이 시작되었다.

1부 축하 음악회는 자녀들의 특별공연으로 조원현 동기의 장남 테너 조정우의 Mattinata, La donna e mobile, 김건우 동기의 장녀 소프라노 김현이의 신 아리랑, Quando men vo 독창이 있었고, 동기들의 자축공연으로 조동규의 박연폭포, 정화선의 I dreamt I dwelt in Marble halls, 이광윤의 시편 23편, 유용운의 세월, 박호경(조병권 부인)의 La spagnola, 조원현의 Non ti scordar di me의 독창이 있은 후 다 함께 '향수'를 부르며 축하음악회를 마쳤다. 2부 댄스 스포츠 시연으로 김대석·강경혜 부부의 왈츠, 최시호·강은희 부부의 탱고 차차차 시연이 있었으나 무대가 좁아 춤 솜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이날 우리 동기들은 '인생의 행복은 만나고 마시고 마음껏 웃는 것'이라는 명제를 밤늦게까지 실천하였다.

둘째 날 : 관광의 날

아침식사를 마치고(어느 동기는 해장술이 없어 섭섭했다고 함) 전세버스에 올라 관광 길에 나섰다. 석굴암 → 전통 비단실 명주관 → 감은사지 → 점심(횟집) → 주상절리 → 기림사 → 저녁(요석궁) → 보문호수 야경산책의 코스다. 석굴암에 다녀온 우리는 한 가지 무식을 깨우쳤다. 항마촉지인 자세로 늘 의젓하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항상 본존불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권인 자세로 서 계시는 법신인 비로자나불의 옆에서 협시불로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불법 앞에서는 작아진다는 것을. 전통 비단실 명주관에는 할머니들이 직접 고치를 삶고 물레를 돌리고 베를 짜는 시범을 보이고 있었다. 고치의 실을 젓가락으로 걸어 올려보던 어느 동기는 기어이 삶고 있는 번데기 한 마리를 입안으로 쏙. 그리고 한마디.
"바로 이 맛이야. 초등학교 시절 추운 겨울날 먹어봤던 그 번데기 맛!"

찰주 하나 품으소서.
감은사지 석탑은 용이 된 문무왕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용혈과 석축의 지하구조를 가진 금당을 거느리고 있는 탑으로 신라 최초의 석탑이다. 탑의 제일 상륜부에는 피뢰침 형상의 쇠기둥인 찰주가 서 있다. 찰주는 탑의 제일 꼭대기에서 기단부로 내려가며 탑의 중심을 통과하는 기둥이다. 그 찰주가 소금기 머금은 바닷바람과 폭풍우의 풍상을 겪으며 1,00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며 아직도 녹슬어 삭아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뚝 솟아 있는 그 변함없는 모습에 깊은 울림을 받았다. 아! 우리들 가슴에도 찰주 하나 품어지기를.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정의 찰주를.

바닷가 횟집 2층에서 수평선을 내려다보며 점심식사를 하고 주상절리와 기림사 관람 후 요석궁에서 저녁 만찬을 가졌다. 운동한 것보다 더 많이 섭취한 칼로리. 그래도 오늘 하루는 봐준다. 다이어트 중인 어느 동기부인의 말.
어둠에 잠긴 보문 호수의 산책길을 돌아 숙소에 도착한 동기들. 그냥 잤다면 누가 믿어줄까? 오늘밤은 여자(부인)를 멀리하고 동기들만 한 잔 하려고 노래방으로 집합하여 몇 순배의 폭탄주가 돌아갔으나 눈치 빠른 어느 사모님에게 발각되어 드디어 부인들과 합석. 뛰어봐야 마누라 손바닥 안인 것을. 그래도 사모님들 덕분에 술값은 절약되었제?

셋째 날 : 골프와 사우나

골프팀은 경주CC로 나머지 팀은 사우나실로. 컨디션이 최상일 때의 스코어나 술이 아직 덜 깨어 몽롱할 때의 스코어가 똑같으니, 아니 골프가 이렇게 쉬워? 그린에만 올라가면 대강 OK준 것 모르나? 골프와 사우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한정식 집에 집합. 된장국을 곁들인 정갈한 한정식으로 배를 불린 동기들이 하는 말. 에이. 아까운 술 다 깼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황남빵 한 통씩 작별의 선물로 받았지만 아쉬움이 발길을 잡는다. 먼 훗날 인생의 어느 뒤안길을 서성일 때 지나간 오늘을 기억하고 미소 지을 수 있게 되기를….

53회,
졸업 30주년 기념행사

추억속으로의 수학여행 – 일본

글 _ **이성구**(53회) 동문

중·고등학교 시절의 수학여행을 기억하는가? 선생님의 인솔하에 모두들 가방 하나 메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난다. 문화유적지 혹은 경치 좋은 곳들을 친구들과 함께 돌아보며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고 낯선 곳에서 맛난 것들도 사먹고 밤이면 숙소에서 선생님 몰래 술, 담배도 한 모금 하고 노래부르고 춤도 추며 놀던 기억 말이다.

까마득한 옛날의 일로만 기억되는 수학여행을 이번에 다녀왔다. 마치 청소년기의 한때를 한 번 더 살아본 느낌이라 할까? 그 추억 속으로 떠난 여행을 즐겁게 기억해볼까 한다.

2015년 5월 23일(토) 첫째 날

새벽 5시 20분에 법원 앞으로 동기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방 하나 들고 소년소녀처럼 설레는 얼굴들로…. 모두들 시간을 잘 지켰지만 박매자 학장님이 젊은 애인과 같이 오느라 약간 늦었다. 그 애인은 14살인데 이름은 이희승이고 우리 일행들에게 귀염을 많이 받았지만 이른 성인식을 치르느라 고생도 좀 하였다. 하여튼 각자 친한 친구들과 회장단이 준비한 맛난 아침식사를 먹으며 재미있게 이야기 하다 보니 어느새 김해공항이다. 대구에서 28명의 동기가 함께 갔고, 부산, 경남, 경주의 친구들은 바로 공항에 왔고(김종원, 서중환, 신창재, 오연희, 장재호, 정순택, 차호, 황영표), 춘천, 수도권의 친구들은 김포에서 출발하여 간사이공항에서 만나기로 하였다(강희천, 박민하, 이명구, 이종성, 홍경순). 김명성 동기 병원(아이꿈터아동병원)에 근무하는 잘생긴 박규상 총무팀장이 사진사로 동행하였다. 그 친구는 정말 키도 크고 인물좋고 몸매좋고 매너도 좋아서 우리 남자동기들이 자기의 젊고 잘생겼던 한 시절을 회고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다. 8시 40분에 메이커는 좀 떨어지지만 값은 조금 싸고 표 구하기 좋은 에어부산(Air Busan)을 타고 일본으로 향했다.

여행계획을 짜고 추진한 이민재 직전회장은 조금 미안했던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 에어부산이 아시아나 계열인거 아나?"

10시 45분에 간사이공항에서 김포팀들과 반가운 해후를 하였다. 공항을 나오는데 일본 모 방송국에서 카메라맨, PD 등이 환영인터뷰를 나왔다. 처음에 손모 동기에게 인터뷰를 신청하였으나 말이 서툰 손모 동기가 심히 두려워하여 언변 좋고 세련된 김숙영이

대신 인터뷰했다. 김숙영은 웃으면서 자못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일본말을 잘 모르는 내가 듣기에는 대략 이런 내용 같았다.
일본PD : "경북의대 53회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본을 찾은 소감은?"
김숙영 : "공항이 깨끗하고 이미지가 좋다. 이렇게 환영해주시니 고맙다. 정치적으로 한일 관계가 어렵지만 민간차원의 교류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터뷰가 끝나고 버스에 올랐을 때 나는 김숙영 동기에게 인터뷰 내용에 대해 물어보았다. 인터뷰 내용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약간 달랐으나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 우리 일행 42명은 2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이동하였다. 1호차의 가이드는 윤정희 씨였고, 2호차의 가이드는 장미라 씨였는데 두 사람 다 40대 초중반으로 상냥하고 친절하며, 일본 역사 및 문물에 대해서도 해박한 가이드들이라 다들 마음에 들어했다.

우리는 와카야마(和歌山) 지역으로 이동하여 구로시오(黑潮) 시장을 구경하였다. 그리 크지 않은 시장이었지만 각종 먹거리, 해산물, 잡화 등을 팔고 있었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아주 청결하였다. 이곳에 있는 식당에서 회정식으로 식사를 하고 시장에서 어묵도 사먹고 과일도 사고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사먹었다. 옹기종기 모여앉아 사진도 찍고 여유로운 자유시간을 가졌다. 남자동기들은 과일이며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여자동기들에게 주었으며 여자들은 고고하게 그것들을 즐겼다.
여자동기들은 박매자, 김정란, 오연희, 임성이, 김숙영, 송경은, 현향숙, 홍경순 동기 등 8명이 참석하였고 이 중 의대학장이 2명(박매자-경북의대, 홍경순-한림의대), 교수가 2명(송경은-경북의대, 김숙영-가톨릭의대), 원장이 4명 있었으나 학생들을 인솔하고 지도할 생각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 놀기에 바쁜 모습들이었다.

구로시오 시장을 떠나 엔게츠도라는 곳으로 갔다. 작은 섬의 중간에 둥그런 동굴이 뚫린, 이상하고도 경치 좋은 지역인데 바닷가에서 이 섬동굴을 바라보며 단체사진도 찍고 개별사진도 찍으며 시간을 보냈다. 나이 탓인지 낮에 한 잔한 beer 때문인지 OAB(Over Active Bladder)가 있는지 몇몇은 가이드에게 화장실을 가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이 보기 딱하였다.

엔게츠도를 떠나 시라하마(白浜) 지역에 있는 산단베키(三段壁)라는 곳으로 갔다. 부산의 태종대나 제주도의 주상절리와 비슷한 지역인데 태평양 바다로 2km에 결쳐 펼쳐지는 시라하마 해변을 따라 조성된 벽이고 높이는 50m가 되는 것 같았다. 이곳 전망대에서 단체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일행 중 180정도 되는 인간들(서중환, 김종원, 신창재, 최정윤, 손윤호 등 자칭 큰놈들)이 단체사진을 찍더니 이번엔 170cm 이하의 동기들도 옹기종기 모여 사진을 찍었다.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한 중간키의 사내몇몇은 할 말이 없자 "정상(正常)들 모여라." 하더니 또 그들끼리 사진을 찍는다. 이날 비롯된 키 논쟁은 이후 여러 곳을 거치며 여러 키 작은 사람 속을 상하게 하였다.

다음은 센조자키라는 곳으로 갔는데 다다미를 깔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돌판으로 신생대 3기층으로 이루어진 사암이 파도에 마모되어 생긴 명승지이다. 부안의 채석강과 비슷한 경치다. 어디가나 사진이다. 바위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보는 친구들도 있고, 계속 여자에게 말을 거는 친구들도 있다. 42명 동기생 한명 한명과 다 사진을 찍는 열성파(이종성)도 있다.
관광을 하다보니 벌써 저녁이 되었다. 인근의 시라하마 시모어(see more)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호텔은 손수준 회장의 장담대로 전 객실이 sea side여서 전망이 너무 좋고 객실도 널찍하였다. 다같이 일본 전통복장인 유카타로 갈아입고 온천을 하고 식당으로 가선 일본 전통 정식코스인 가이세키(會席)식으로 성대한 식사를 하였다. 유카타를 입고 길게 마주 앉아 정좌하고 있으니 동기 모두가 사무라이가 된 듯 하였다. 특히 앞머리가 약간 없는 모 동기와 꽁지머리를 한 또 다른 모 동기는 그 모습이 진짜 사무라이를 연상케 하여 모두를 웃음짓게 하였다.

맥주와 청주를 한 잔하고 조별로 노래도 몇 곡씩 하였다. 친구여, 젊은 그대, 만남, 사랑으로 등을 합창하며 어깨동무도 하고 춤도 추었다. 수학여행을 와서 친구들끼리 즐겁게 노는 듯한 기분이다. 다음은 716호 base camp에 헤어지기 섭섭한 친구들이 모여서 낮에 들른 수퍼에서 산 4리터짜리 위스키 산토리와 일본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며 일본에서의 밤을 즐겼다. 기분은 좋고 정에 취한 탓인지 모두들 끊임없이 술잔을 기울였다. 일본에서의 첫날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5월 24일(일) 둘째 날

아침에 호텔 뷔페식당에 가니 맛있는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부시시 잠깬 얼굴로 모두들 모여들었는데 일부는 얼굴이 약간 edematous 하고 몇몇은 보이지 않았다. 과음을 했나보다….

식사를 마치고 쿠시모토(串本)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혼슈(本州)의 남쪽 해안도로를 달리는데 바다의 경치가 아주 좋았다. 꼬불꼬불한 해안을 달리는데 우리나라와 아주 풍경이 비슷하다. 버스가 달리는 도중 신창재 동기는 구수한 언변과 해박한 지식으로 전국시대 에도시대의 일본 역사를 흥미있게 이야기 해주어 진짜 가이드를 놀라게 하고 큰 박수를 받았다. 역사공부를 엄청했나 보다.
쿠시모토의 세계해중공원에서 수족관과 해중 전망탑도 구경하였다. 형형색색의 진귀한 물고기들을 눈앞에서 만나니 신기하였다. 해중 전망탑까지 시원한 해풍을 맞으며 바다 위를 걷는 기분도 일품이었다. 50~60년 된 바다거북도 함께 보았다. 이곳에서 식사도 하였는데 어제 과음을 한 이모, 박모, 변모 등은 앉으면 약간 drowsy 하였고 움직일 때는 수족관의 도다리, 광어, 바다거북처럼 매우 sluggish 하였다. 몹시 힘이 드는 것 같았다.

다음으로 혼슈 최남단 지역인 시모노마사키(潮岬)로 이동하여 태평양의 가없는 수평선을 뒤로하고 사진도 찍고, 경치도 구경하였다. 오늘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더니 빗방울이 약간씩 떨어졌다. 그러나 비는 이내 멎었고 두 번 다시 내리지 않았다.
다시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우리나라의 해금강을 닮았다는 아름다운 해안가 절벽 해금강에서 시원한 숲길을 걸으며 해안의 절경을 감상하였다. 모두들 삼삼오오로 길을 걸으며 지나간 세월의 안부를 묻고 격려도 해주고 삼림욕도 하며 맑은 공기 속에서 진정한 healing의 시간을 가졌다. 그곳에서 직접 농사지은 자몽인지 오렌지를 파는 순수한 노인부부를 보니 우리의 시골농부들 생각이 났다.

이번에는 홍법대사와 천아귀(잡귀)의 전설이 있는 하

시쿠이이와 (橋杭岩)로 갔다. 약 40개의 바위가 마치 다리의 교각처럼 서있는 절경이었다. 여기서도 "왔노라, 샀노라, 찍었노라"라는 말처럼 화장실 갔다와서 사진찍고, 놀다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나치산(那智山)으로 향했다.

나치산은 일본의 신령스런 산인가 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이몬자카(大門板) 순례길도 있고 나치타이샤(那智大社), 세이칸토지(青岸渡寺) 나치폭포 등이 있어서 순례객, 참배객,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다이몬자카로부터 나치타이샤로 가는 삼나무 숲길은 2.5km쯤 되는데 울창한 삼나무, 편백나무 숲이 있어서 너무 좋은 삼림욕장이 되었다. 맑은 공기와 삼나무, 편백나무 향을 맡으며 등산하는 기분은 진정한 healing 그 자체였다.

발 밑에 펼쳐지는 장엄한 경치와 함께 나치타이샤라는 큰 신사가 나온다. 절과는 또 다른 아주 낯선 풍경이다. 그 옆의 세이칸토지는 서국 33개 사찰 중 첫 번째 사찰이라 하는데 고색창연한 분위기가 고찰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절과는 또 다른 분위기다. 모두들 한참을 헤매었는지라 1,2조로 나누어 인원점검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 나이가 들면서 사진찍는 일이 시들해졌는데 그래도 추억을 남기느라 열심히 사진들을 찍고 있다.

나치산폭포는 일본의 3대 폭포 중의 하나인데 높이 133m로 장대한 물줄기를 자랑하고 있다. 당나라 이백의 시 망여산폭포(望廬山瀑布)에 요간폭포괘장천(遙看瀑布掛長川)-멀리서 폭포를 보니 장천(長川)이 걸려있구나-의 표현 그대로다. 거대한 물줄기가 허공에 걸린 듯한 풍경이다.

이 좋은 산에 와서 좋은 사당, 절, 폭포를 구경했으면 마음이 씻길법도 하건만 우리 친구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웃는다.

손모의 이야기. 유카타를 입으니 모 동기는 발이 안 보이는데 김종원은 gastrocnemius muscle이 보이더라 운운…. 이 말을 듣고 이제까지 침묵하던 키작은 모 동기는 울분을 참지 못하여 폭포를 바라보며 절규하듯 소리친다.

"아! 나도 키 좀 크고 싶다~~~."

나치산 관광을 마치고 바닷가로 가서 귀여운 거북이 배를 타고 카츠우라(勝浦) 시의 우라시마(浦島) 호텔에 갔다. 갑자기 요란한 북소리가 들리기에 보니 호텔직원 십수 명이 일렬로 서서 북소리에 맞춰 고개를 깊이 숙이며 환영의 인사를 한다. 일본인의 친절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호텔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호텔식당에 모여 어제보다 더 성대한 가이세키식 식사를 한다. 오늘은 의자에 앉아서 청주와 맥주를 곁들여 근사한 식사를 한다. 식사 후에는 각 지역별로 참석한 동기들이 앞에 나와서 각자 살아온 이야기. 이번 여행의 소회 등을 이야기하면서 함께한 동기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헤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목소리들이 절절하다. 춘천 한림대 이명구 동기는 이번 가을에는 춘천에 꼭 오라고 신신당부한다.

-이번 주말에는 춘천에 다녀오려고 한다. 소양강의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일본여자 이사코(朝子)에 대한 그리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피천득 선생의 수필 인연의 마지막 구절이다.

-이 말씀대로 이번 가을엔 춘천을 가보고 싶다. 추억을 찾아 친구를 찾아…

아쉬운 식사를 마치고 온천을 하였다. 이름도 이상한 망귀동온천, 동굴온천, 노천온천 등 온천의 종류만 해도 많다. 시간이 다소 부족했지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일본온천의 진수를 즐겼다.

9시 30분에 우라시마 호텔 가라오케를 통째로 전세 내어 동기생 42명이 모였다. 김명성 동기의 사회로 이성구가 우리 인생의 지나버린 푸른 오월을 생각하며 시 한 수를 읊었다.

푸른 오월 노천명

청자빛 하늘이
육모정 탑 위에 그린듯이 곱고
연못 창포 잎에
여인네 맵씨위에
감미로운 첫여름이 흐른다.

라일락 숲에
내 젊은꿈이 나비처럼 앉은 정오
계절의 여왕 5월의 푸른여신 앞에
내가 웬일로 무색하고 외롭구나
밀물처럼 몰려드는 향수를
어찌하는 수 없이
눈은 먼데 하늘을 본다
긴 담을 끼고 걸으며 걸으며
생각이 무지개처럼 핀다

물씬 풀냄새가
향수보다 좋게 내 코를 스치고
청머루 순이 뻗어나오던 길섶
어딘가 한나절 꿩이 울고
나는 활나물 호랍나물 젓갈나물
참나물을 찾던
잃어버린 날이
그립지 아니한가 나의 사람아

아름다운 노래라도 부르자
서러운 노래를 부르자
보리밭 푸른 물결을 헤치며
종달새마냥 내마음은
하늘높이 솟아오른다.

오월의 창공이여
나의 태양이여

몇 동기들은 "네가 직접 쓴 시냐? 너무 좋다. 우리의 푸른 오월이 생각난다."라고 칭찬해 주었다. 나는 너무나 유명한 노천명의 푸른 오월을 모르는 동기들이 답답하기도 하였지만 속으로는 '앞으로 몇년 더 해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나쁜 생각도 잠시 들었다.

이어서 가수 이철의 Let it be me, 권종설의 애인 있어요, 장재호의 남남, 김성국의 촛불, 손수준의 백만송이 장미, 서호철의 안동역, 김정란의 남행열차, 최정윤의 사랑, 여자동기들의 우리들의 이야기, 현향숙의 사랑으로, 서중환의 섬진강 시 등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오늘도 이번 여행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656호로 모였다. 산토리 4리터와 많은 맥주가 우리를 기다렸다. 어제의 주당들은 대부분 못나오고 2진들이 옹기종기 모여 폭탄주를 마셨다.

신창재, 최정윤의 제조에 이어 김숙영이 병권을 잡았을 땐 술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우리도 어지간히 취했다. 폭탄주를 몇 잔씩 건네고 몇몇이 마시길 망설이자 김숙영이 소리쳤다.

"괜찮아, 이 산토리는 아주 뒤끝이 깨끗해!"

모두들 놀라서 잔을 비웠다. 마지막엔 양주가 조금 부족했다. 늦은 술자리가 끝나고 모두들 비틀거리며 숙소로 돌아갔다.

5월 25일(일) 셋째 날

마지막 날이다. 아침에 일어나 해변의 경치가 아주 아름다운 뷔페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많은 일본인들도 함께 식사를 하였다. 일본 식당엔 물잔도 식판도 커피잔도 아주 작았다. 먹을 만큼 먹고 절약하는 그들에게 본받을 점이 많았다. 배를 타고 나오는데 이번에도 호텔 직원들이 배가 떠날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어 주었다.

원래 계획은 가츠우라에서 출발하여 나라현(奈良縣)의 고조(五條) 시에 가서 에도(江戶)시대의 유적을 관광할 작정이었지만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 바로 오사카(大板)로 왔다. 오사카의 최대 번화가인 신사이바시에서 쇼핑도 하고 라멘, 짬뽕, 타코야끼 등 맛있는 음식을 사먹으며 이국적인 정취를 즐겼다. 이윽고 시간이 되어 간사이공항으로 갔다. 여기서 김포로 가는 친구들과 포옹하며 다시 만나길 약속하였다.

우리는 김해로 와서 어두운 밤길을 달려 대구에 왔다. 3일의 여행이었지만 긴 여운이 남는다. 홍안의 소년, 소녀들이 30년이 지나 만나서 옛날이야기를 하며 그시절로 돌아간 즐거운 느낌, 우리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다.

친구들아 사랑한다.

항상 건강하고, 또 만나자~~~

'松軒 HALL' 개관의 所懷

글 _ **강진성**(29회) 동문

지난 6월 5일, 대구 김&송성형외과의원에서는 폴란드의 쇼팽 아카데미의 교수들[Jerzy Maciejewski(피아노), Krzysztof Podejko(바이올린), Chisang Park (비올라), Jarostaw Domzat (첼로)]을 초빙하여 음악을 사랑하는 지역 명사들과 계명의대 동산병원 성형외과 출신 제자들이 모여 '松軒 HALL' 오픈 기념음악회를 가졌다.

김&송성형외과의원 김덕영 박사가 이 부족한 사람이 금강송이 많은 봉화에서 태어나서 성형외과 분야의 제자들을 길러 한 집안을 이루었다고 해서, 소나무 송(松)과 집 헌(軒)으로 호를 지어 주었다. 그동안 어릴 적에 외조부께서 지어주신 '요한'이라는 아명(兒名)으로 불려왔는데, 이젠 松軒이라는 호(號)로 더 많이 불리고 싶다.

1997년 개원 이후 김&송성형외과에서는 지역사회에 격조 있는 문화기부 차원에서 Salon concert를 매년 2~3차례 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개원 이래 음악홀로 사용해 오던 공간을 확장하고 리모델링하여 9층을 松軒 HALL로 명명하는데도 뜻을 같이 한 것을 보며, 그리고 평소에 동업자의 차원을 넘어 한 마음으로 친형제처럼 지내는 김덕영 박사(한양의대 4회)와 송중원 박사(49회)의 아름다운 인간관계와 오롯한 사랑을 보며 감회(感懷)가 새롭다.

송헌홀 개관을 계기로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감회(感懷)가 깊다. 교직에서 정년퇴임한지 벌써 15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두 원장은 '흐르는 물은 썩지 않으며, 도는 물레방아는 얼지 않는다'고 격려하면서, 함께 진료하기를 기뻐하고 또한 후학을 위한 성형외과학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대신하여 노년의 삶 전반을 돌봐주는 것을 보고서 꼭 자기 몸에서 난 자식만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모쪼록 송헌홀을 오픈함으로써 개원 이래(以來) 환자들과 시민들을 위해 음악으로 봉사해오던 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과거보다 더욱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발전기금 납부 현황

*발전기금은 1992년 6월 3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자료입니다.
(단위: 원)

회수	성명	발전기금
1회	송명도	7,000,000
12회	정필수	100,016,238
16회	김만재	2,000,000
16회	이강백	1,000,000
16회	홍선희	2,000,000
17회	남태현	1,000,000
17회	안두홍	3,000,000
18회	박재식	5,600,000
18회	신동우	9,900,000
18회	이강수	2,000,000
18회	이성구	8,999,784
18회	전기영	1,000,000
18회	조운해	120,000,000
20회	오창열	39,184,000
22회	박영훈	2,000,000
22회	박충서	200,000
22회	최현호	20,000,000
23회	김경수	1,950,000
24회	김경환	24,000,000
24회	백성기	1,000,000
24회	서상하	200,000
24회	이동영	1,000,000
24회	조준승	11,000,000
25회	강중신	1,000,000
25회	노영하	100,000,000
25회	박정열	300,000
25회	박준식	22,100,000
25회	서성탁	2,000,000
26회	김동락	956,000
26회	김상하	2,000,000
26회	김종환	10,000,000
26회	이우홍	2,000,000
26회	정태호	1,750,000
26회	최홍두	100,000
26회	황일우	1,000,000
27회	이교연	90,000,000
27회	이규원	48,000,000
27회	정창근	2,000,000
27회	최성근	500,000
27회	최수년	1,000,000
28회	김병일	1,000,000
28회	김재식	13,100,000
28회	김형규	1,000,000
28회	윤영길	10,000,000
28회	이상계	11,000,000
28회	이재창	1,000,000
28회	정용국	10,000,000
28회	한근섭	1,000,000
28회	이덕희	2,000,000
29회	김병권	3,000,000
29회	박무근	300,000
29회	이강목	1,000,000
29회	이진관	1,000,000
29회	정일현	10,000,000
29회	정준모	2,900,000
30회	강창수	5,000,000
30회	김세현	1,000,000
30회	신은식	3,000,000
30회	안원호	100,000
30회	이웅길	10,000,000
31회	구자훈	2,000,000
31회	박경화	135,000
31회	백봉수	15,000,000
31회	양성기	3,000,000
31회	임정규	994,054
31회	최영달	1,000,000
32회	김동진	4,500,000
32회	안영환	6,480,426
32회	이종학	180,000
32회	장세국	11,000,000
32회	장수일	11,000,000
32회	조태환	3,000,000
33회	권오석	1,800,000
33회	김수용	10,162,000
33회	김이민	1,000,000
33회	김형우	2,000,000
33회	박진웅	6,000,000
33회	이규보	9,700,000
33회	이죽내	8,000,000
33회	인주철	10,000,000
33회	전상훈	1,000,000
33회	정상립	6,000,000
33회	정한진	900,000
34회	김충남	1,000,000
34회	이규청	1,770,000
34회	이용준	200,000
35회	강백현	100,000,000
35회	박동술	10,800,000
35회	이원순	2,000,000
36회	강병조	1,100,000
36회	백용현	2,000,000
36회	이영하	5,000,000
36회	이정범	12,500,000
37회	박동성	1,900,000
37회	박의현	5,000,000
37회	이정우	1,000,000
37회	이청혜	800,000
37회	전수한	9,000,000
37회	정동일	4,700,000
38회	곽용철	300,000
38회	구본출	16,500,000
38회	권정윤	14,000,000
38회	김규태	10,000,000
38회	김태준	200,000
38회	김풍택	8,900,000
38회	박무길	1,000,000
39회	강덕식	16,930,000
39회	곽정식	900,000
39회	문영길	100,000
39회	박순천	1,000,000
39회	박연묵	10,000,000
39회	서인수	11,000,000
39회	우성구	600,000
39회	이종태	3,000,000
39회	정정표	200,000
39회	정태훈	8,000,000
39회	조남근	10,000,000
39회	조호철	5,000,000
40회	김희숙	360,000
40회	도재욱	1,000,000
40회	이영헌	4,500,000
40회	전재은	5,000,000
40회	조성룡	3,000,000
41회	강임주	4,000,000
41회	김시열	5,000,000
41회	박윤규	1,000,000
41회	박일수	3,000,000
41회	서정희	1,000,000
41회	안성열	15,350,000
41회	윤영국	14,000,000
41회	은충기	100,000
41회	이건수	2,500,000
41회	이달우	1,000,000
41회	이상범	3,500,000
41회	이상흔	25,500,000
41회	장명익	2,000,000
41회	최광식	1,000,000
41회	하지운	1,050,000
41회	홍정길	5,000,000
42회	김용주	5,500,000
42회	김철수	1,000,000
42회	은종대	10,000,000
42회	이광열	1,000,000
42회	이상호	1,000,000
42회	이정근	1,000,000
42회	정제명	1,000,000
42회	조동택	3,000,000

42회	현성택	2,000,000
43회	강승원	600,000
43회	강정훈	600,000
43회	권광인	600,000
43회	권오영	600,000
43회	권창운	18,600,000
43회	김건우	600,000
43회	김광록	600,000
43회	김교완	600,000
43회	김기주	600,000
43회	김대석	600,000
43회	김보완	14,600,000
43회	김성한	600,000
43회	김세동	600,000
43회	김수복	600,000
43회	김여희	600,000
43회	김정도	600,000
43회	남수현	600,000
43회	민병문	600,000
43회	박광서	600,000
43회	박노문	2,600,000
43회	박동철	600,000
43회	박병탁	600,000
43회	박봉훈	600,000
43회	박상열	600,000
43회	박승해	600,000
43회	박재우	1,600,000
43회	방용준	600,000
43회	배연수	600,000
43회	백태원	600,000
43회	손경식	5,600,000
43회	송인달	600,000
43회	신경호	600,000
43회	안대덕	600,000
43회	안무식	600,000
43회	오태원	600,000
43회	유용운	600,000
43회	윤덕구	3,600,000
43회	이광숙	600,000
43회	이광윤	600,000
43회	이규석	600,000
43회	이길모	600,000
43회	이상무	600,000
43회	이진식	1,600,000
43회	임윤규	600,000
43회	임정근	600,000
43회	장병준	600,000
43회	장사상	600,000
43회	장운하	700,000
43회	전상식	3,100,000
43회	전진곤	10,600,000
43회	정덕수	600,000
43회	정상범	600,000
43회	정수기	600,000
43회	정화선	600,000
43회	조동규	7,600,000
43회	조병권	600,000
43회	조성경	600,000
43회	조영철	2,600,000
43회	조원현	600,000
43회	지용철	105,600,000
43회	최수영	600,000
43회	최수한	600,000
43회	최시호	600,000
43회	최종의	600,000
43회	추연수	600,000
43회	하인선	600,000
43회	홍태근	600,000
43회	황보백	600,000
44회	곽규식	3,000,000
44회	김법완	1,000,000
44회	박영재	1,000,000
44회	백운이	2,007,000
44회	이석균	1,000,000
44회	정상호	2,000,000
44회	조영래	1,000,000
44회	함인석	15,000,000
45회	고봉환	1,000,000
45회	김도원	23,000,000
45회	김성화	9,000,000
45회	김영욱	2,000,000
45회	김영준	10,450,000
45회	김정수	4,000,000
45회	김행미	2,500,000
45회	박병규	3,000,000
45회	박진석	4,690,000
45회	유완식	6,000,000
45회	이병수	10,000,000
45회	이원길	2,440,000
45회	정기묵	2,000,000
45회	채종민	8,000,000
45회	최영욱	4,700,000
45회	황성규	2,153,000
46회	김대환	10,200,000
46회	김인택	3,000,000
46회	김철래	1,000,000
46회	반재율	100,000
46회	서성조	300,000
46회	서일숙	500,000
46회	손재경	5,000,000
46회	신세원	5,400,000
46회	이강일	200,000
46회	이재백	500,000
47회	김교선	5,450,000
47회	신순희	900,000
47회	윤만모	200,000
47회	윤확	1,000,000
47회	이재준	200,000
47회	이지욱	100,000
47회	정성광	5,884,102
47회	조희중	2,195,000
47회	최창필	1,000,000
48회	김두환	5,000,000
48회	김형진	1,000,000
48회	박일형	10,135,000
48회	박재복	300,000
48회	박준호	150,000
48회	박창융	2,850,000
48회	서경진	600,000
48회	이윤순	2,000,000
48회	장봉현	5,000,000
48회	채성철	5,000,000
49회	강철형	5,000,000
49회	고철우	3,720,000
49회	권세일	200,000
49회	김호준	9,000,000
49회	배한익	3,520,000
49회	서장수	5,700,000
49회	송중원	5,000,000
49회	오수희	6,750,000
49회	이관호	100,000
49회	임효덕	1,000,000
49회	조정현	2,000,000
49회	최영철	15,400,000
50회	길영태	10,000,000
50회	김정철	5,090,000
50회	김호각	900,000
50회	박귀동	13,500,000
50회	서노교	200,000
50회	손윤경	7,000,000
50회	이만기	8,500,000
50회	이영환	900,000
50회	이유철	3,600,000
50회	이재태	10,590,000
50회	정현대	810,000
51회	강수찬	9,000,000
51회	고삼규	3,000,000
51회	김동석	50,000
51회	김신윤	3,770,000
51회	김장락	50,000
51회	김재왕	3,000,000
51회	박만규	54,000
51회	이경민	300,000
51회	임영미	1,500,000
51회	장대성	3,000,000
51회	하용수	1,000,000

51회	현명철	2,680,000
52회	강병직	21,800,000
52회	김도수	900,000
52회	김봉재	19,500,000
52회	김용선	500,000
52회	김인산	10,620,000
52회	김종호	2,000,000
52회	김효경	1,000,000
52회	나건연	11,000,000
52회	민병국	10,000,000
52회	박성파	4,000,000
52회	박일순	1,000,000
52회	박재용	5,000,000
52회	박창근	1,000,000
52회	백승찬	9,000,000
52회	백원진	2,000,000
52회	송국평	5,000,000
52회	이기훈	900,000
52회	이무상	10,000,000
52회	이성원	100,000
52회	이종명	2,000,000
52회	이택후	5,000,000
52회	장원표	27,000,000
52회	장해운	1,000,000
52회	정경희	200,000
52회	정용식	1,000,000
52회	조병채	20,500,000
52회	최병흔	500,000
52회	최일석	1,000,000
52회	최정규	3,000,000
52회	하정희	3,930,000
52회	한상철	500,000
52회	황윤진	2,000,000
53회	권순학	2,000,000
53회	김시오	4,585,000
53회	김용림	5,000,000
53회	박매자	400,000
53회	손수준	30,920,000
53회	손진호	2,000,000
53회	송경은	1,090,000
53회	여성우	1,000,000
53회	육순황	600,000
53회	이한일	9,000,000
53회	정호영	1,500,000
53회	조희태	12,000,000
53회	최성관	9,000,000
53회	홍경순	5,000,000
54회	강영모	2,000,000
54회	경희수	12,790,000
54회	권영오	12,000,000
54회	김수동	9,000,000
54회	김인겸	14,800,000
54회	김재홍	90,000
54회	김형표	100,000,000
54회	성열오	4,500,000
54회	박낭운	1,000,000
54회	성기영	9,000,000
54회	이경호	2,000,000
54회	이상민	978,820
54회	최동원	1,000,000
54회	최진교	18,552,000
54회	하승우	4,700,000
54회	허용진	1,000,000
54회	황정한	156,175,000
55회	권장구	1,000,000
55회	금종명	200,000
55회	김숙희	1,000,000
55회	박성근	8,600,000
55회	박위태	200,000
55회	손상균	1,000,000
55회	손형규	8,100,000
55회	이석종	3,000,000
55회	전일훈	500,000
55회	정현주	4,500,000
55회	조용근	1,000,000
55회	최규석	500,000
55회	최병호	2,000,000
55회	한수일	900,000
56회	감신	2,000,000
56회	권태균	2,500,000
56회	권태환	2,205,000
56회	김수균	17,600,000
56회	김정국	500,000
56회	박윤엽	50,000
56회	박헌식	1,900,000
56회	성준제	9,000,000
56회	오창욱	10,900,000
56회	이국형	4,500,000
56회	이양수	46,500,000
56회	임동건	4,000,000
56회	정성훈	1,300,000
56회	황윤근	100,000
57회	김문규	3,900,000
57회	김성기	5,000,000
57회	김용태	1,000,000
57회	김용현	7,200,000
57회	김은숙	1,000,000
57회	김정열	11,900,000
57회	김철진	1,000,000
57회	박정철	28,000,000
57회	박태인	3,000,000
57회	박형근	100,000
57회	배용철	100,000
57회	서경미	200,000
57회	서선교	4,500,000
57회	성이경	475,000
57회	송준화	9,000,000
57회	이병헌	2,205,000
57회	이양현	2,000,000
57회	탁원영	4,600,000
57회	허현준	475,000
58회	구태본	3,000,000
58회	김영대	1,000,000
58회	마상혁	50,000
58회	소형태	900,000
58회	신승호	4,500,000
58회	안병철	6,400,000
58회	안승훈	3,800,000
58회	양은경	4,000,000
58회	이상한	26,900,000
58회	한영철	2,000,000
58회	황정현	1,054,000
58회	황정환	2,500,000
59회	공현희	4,000,000
59회	권혁만	9,000,000
59회	김상헌	9,100,000
59회	김정민	200,000
59회	김철현	3,045,000
59회	서혁준	900,000
59회	손현호	900,000
59회	신동규	900,000
59회	안형수	100,000
59회	윤길숙	580,000
59회	윤준혁	2,250,000
59회	조준용	1,000,000
59회	차승익	1,000,000
59회	한형수	2,175,000
60회	김상걸	2,000,000
60회	김태석	1,000,000
60회	박재찬	1,189,000
60회	배호상	3,600,000
60회	백승혜	4,500,000
60회	양동렬	7,200,000
60회	오상호	900,000
60회	오승훈	900,000
60회	이응배	500,000
60회	정재호	9,500,000
60회	한정훈	5,000,000
60회	황정욱	4,750,000
60회	홍은희	1,000,000
61회	고영민	9,500,000
61회	김태헌	500,000
61회	민복기	50,270,000
61회	서영진	4,500,000
61회	신동주	4,500,000
61회	이정훈	9,500,000

61회	이종우	900,000
61회	이채용	1,200,000
61회	임동현	1,000,000
61회	전영훈	180,000
61회	정호윤	3,000,000
62회	정진욱	8,195,000
62회	조진흠	900,000
62회	황성주	67,350,000
63회	김건엽	3,000,000
63회	김광우	9,000,000
63회	양근진	3,325,000
63회	유은상	1,000,000
63회	이지인	900,000
63회	전태형	81,000
64회	권순백	4,500,000
64회	김여향	90,000
64회	민우기	1,800,000
64회	박성현	54,000
64회	신용환	180,000
64회	이우근	19,980,000
64회	이현주	4,500,000
64회	전성우	90,000
64회	한창규	6,300,000
65회	김난희	5,000,000
65회	박창영	900,000
66회	권오경	5,445,000
66회	김영은	9,900,000
66회	류현욱	720,000
66회	백승훈	9,000,000
66회	변승득	900,000
66회	이성만	9,000,000
66회	이정래	900,000
66회	이정호	3,200,000
67회	차영창	1,800,000
68회	이용범	900,000
68회	이원채	4,500,000
68회	황준경	9,000,000
69회	박신률	45,000
69회	우고운	500,000

69회	장윤환	4,500,000
70회	박남윤	5,000,000
70회	임태규	300,000
70회	조장희	90,000
71회	김지호	4,500,000
71회	남경훈	135,000
71회	성현철	18,000,000
71회	오수훈	900,000
73회	정홍대	900,000
74회	차현욱	1,800,000
76회	송창현	900,000
76회	신동욱	135,000
76회	정희연	270,000
78회	홍한표	2,700,000

기타	발전기금
제16회 동기회 일동	10,000,000
제18회 동기회 일동	10,000,000
제24회 동기회 일동	5,700,000
제32회 동기회 일동	13,950,000
제33회 동기회 일동	4,500,000
제37회 동기회 일동	39,000,000
제38회 동기회 일동	30,000,000
제39회 동기회 일동	40,000,000
제40회 동기회 일동	40,000,000
제41회 동기회 일동	40,000,000
제42회 동기회 일동	36,000,000
제44회 동기회 일동	50,400,000
제45회 동기회 일동	61,800,000
제46회 동기회 일동	60,000,000
제47회 동기회 일동	158,000,000
제48회 동기회 일동	100,000,000
제49회 동기회 일동	95,000,000
제50회 동기회 일동	95,000,000
제51회 동기회 일동	106,200,000
제52회 동기회 일동	135,000,000
제53회 동기회 일동	135,000,000
제54회 동기회 일동	90,000,000
제55회 동기회 일동	90,000,000
제56회 동기회 일동	135,000,000
제57회 동기회 일동	90,000,000
제58회 동기회 일동	90,000,000
제71회 동기회 일동	5,000,000
제78회 동기회 일동	1,800,000
경북대병원 기금교수회	2,700,000
경북대병원 성형외과 동문회	45,000,000
경북대병원 외과 동문회	12,600,000
경북의대 신경과학교실	35,224,266
경북의대 울산동창회	10,000,000
동문테니스회	16,800,000

2015년도 장학기금 모금 현황

*2015년 1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납부자 명단입니다.
(단위 : 원)

구분	성명	기수	금액	납부일자
1	이우근	64회	5,000,000	1. 21
2	박문흠	50회	3,000,000	2. 3
3	유충목	66회	500,000	2. 28
4	전재규	30회	5,000,000	3. 3
5	백승기	46회	7,000,000	4. 15
6	故 박희명	13회	20,000,000	5. 21
7	김진수	60회	1,000,000	5. 28
8	졸업 25주년 홈커밍	58회	50,000,000	6. 9
9	졸업 50주년 홈커밍 (북미주)	33회	29,328,913 (26,500$)	6. 10
10	강영순	58회	1,500,000	7. 2
11	황정환	58회	1,500,000	7. 2
12	송중원	49회	5,000,000	8. 11

*괄호( )는 계좌수입니다.

장학금 1인1계좌 명단

*2015년 10월 7일 기준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16회	성창섭	**30회**	**34회**	김태곤
홍선희	이재복	강창수	강행복	이승호
	이재양	권득기	김수길	이원기
17회	이철상	권용주	김충남	정영복
최경달	정승환	김규호	최호섭	최성협
	정창근	김도상		
18회	조한제	김병화	**35회**	**39회**
이강수	최수년	김석구	김대조	강덕식
이성구	황한호	김세현	김무현	곽정식(5)
전기영		김의원	김영희	문정웅
조운해	**28회**	박수연	김용언	박노삼
	곽동수	배병원	김장환	박순천
19회	구종수	소원영	도종웅	박진현
김익동	김선홍(2)	신은식	박동술	전의식
배수동	김재식	안원호	박영남	조남근
	김형규(2)	오장석	이두룡	
20회	김희교	이상원	이원순	**40회**
정우	노수열	이상화	장충광	곽재영
	염우권	이웅길		김성호
23회	윤영길	이종길	**36회**	김옥동(2)
김희철	이재창	이종택	견일수	김완섭(2)
	정용국	이학수	박형규	김일경(2)
24회		전병석	백용현	김재숭
정균용	**29회**	조세환	손건부	김징균(20)
함덕상	김두희		이창수	김홍조
	박병덕	**31회**		도영구
25회	박영춘	백봉수(2)	**37회**	도재욱(2)
이정호	박진상	안재두	권굉우	박영호
	백영수	이상원	김종률	서정규(2)
26회	송화복	이채현	박기호	손승원
곽각순	예민해		박노선	유병욱
김재수	유병철	**32회**	박동성	윤병철
박노택(5)	이강목	신현국	백인기(3)	장길동
이우홍(2)	이건화		신홍식	전석길
황일우	이경수	**33회**	안영규	정재화(3)
	이승도	김형우	최용환	조규홍
27회	이종수	이석강	하청길	한승세
김경수	이진관	이학용		
박근수		인주철	**38회**	**41회**
박재호		최명부	김규태	강임주

이름
김경년
김곤홍
김성학
김시열
박경동
박근목(5)
박일수
배재기
배효근
백명규
백옥지
변인수
안성열(10)
윤영국
이상도
이상흔(2)
이재우
장한기
최광식
최덕현
홍정길
황규흥
42회
김용탁
김의홍
김종식
김철규
김철수(2)
문덕균
변영우(10)
서석주
송재권
은종대
이광열
이규인(2)
이상호(5)
이정근
임해수(5)
정무달
정제명(2)
최병연
최원석
추연만

이름
현성택
43회
권종수
김기주
김대석
김보완
김정도
박노문
박동철
박재식
박재우
방용준
방인화
백태원
안대덕
우성구(2)
윤덕구
이광숙
이광윤(3)
이진식
장병준
장사상(6)
장운하
전상식
전진곤
정화선
조동규
조병권
조성경(2)
조영철
조원현
지용철(10)
최수한
최시호
하인선
황보백
44회
강신수
김경선
김광훈
김법완
김재도

이름
김지홍
박광우
배형일
백상헌
백운이
심일청
오천석
이경화
이석균
이웅렬
이윤상
이정권
이정규
임탕식
전명숙
조영래
함인석
홍승근
45회
고봉환
김광우
김도원
김성화
김종훈
김행미
김홍태(2)
남상재
배선익
백철운
신현주
안도환
유성호
유완식
이기호(2)
이병수
이원길
이종태
이호성
정만진
하종섭
허정욱
황성규

이름
46회
고병구
김석찬
김세웅
김인택
김중구
박태정(3)
성주경
오세진
이인걸(14)
이재백
이재석
이창
정준헌
47회
강상대
김용신
김장희
김종호
남복동(5)
신순희(2)
유영구(2)
이재준
이준희
전민
정만홍
정영환(2)
정지윤
최광호
48회
권영철
김복연
김원섭(3)
김인호
김일환
김지성
김창윤
김항재(10)
류수현
문병천
박준호
박창융

이름
서경진
손계학
손혜경
신명숙
안문영
이경열
이규원
이내호
이동진
이동헌
이숙희
이왕복
이윤순
조영섭
최성만
탁기식(2)
하정상
홍순도
49회
강명수
권세일
김종서
김진우
김혜영
김호준(6)
박원대
박장환
배홍갑
서장수
손석수
손찬락
송국현
신제균
안욱
오수희
오영철
이관식
이봉우
이정국
임재양
천종율

이름
50회
강동기
곽정호
길영태
김규상
김금주
김삼열
김상유
김재연
김재황
김정철
김종윤
김종흥
박문흠
서억수
서정욱
안기영
유빈서
이동길
이유철(5)
이의효
이재태
정병욱
조현숙
최영택
추동호
함희원
황용순
51회
강성희
강인구(3)
고삼규
권오종
권일훈
권태우
김광만
김광석(2)
김대연
김동석
김무원
김병헌
김병화
김신윤

이름
김인영
김장락
김재왕
김태준
박만규
박봉기
박성민
방종경
서순애
성후식
손희철
송광익
양상호
양원병
오동원
유경재
윤여득
이경민
이경수
이경영
이기만
이명우
이성희
이우녕
이원석
이재구
이헌수
임영미
임청호
장기호
장대성
장병원
정수영
정웅표
정철희
조충래
지성구
최성근
한금주
한상철
허달영(2)
홍성태
홍영애
황영목

이름
52회
곽동협(5)
곽시영
곽철승
구본신(3)
권경훈(5)
권순훤(2)
기세길(5)
김경식(3)
김기홍
김동억
김상근
김순덕
김승일
김영조(2)
김인산
김재홍
김종일
김종호(2)
김헌수(3)
나건연(2)
남문진(2)
남혜주
도은식(5)
민병국
박동보
박승준
박우용
박일순(3)
박재용
박재율(3)
박창근(2)
배성일(2)
손구현(5)
이기훈(2)
이상평
이성원(2)
이장철(2)
이재동
이정안
이종명
이종오
이택후(2)
장원표(2)

이름
장해운(2)
전상중(3)
전상훈
전시열
정경희
정명희
정용식
정종철(2)
조병채
조완석(2)
최병흔
최상호(5)
최일석(3)
최정규
추진신(2)
하정희
함소희(3)
홍성권
황윤진
53회
강헌구
강희천
권영식
권종설
금학조
김규태
김동찬
김명성
김세연
김숙영
김시오
김영호
김원태
김재선
김정란
김종원
나병천
류형우
박매자
박민하
박병규
박세영
박세협

이름
배재용
변정환
서경란
서중환
서창수
손경호
손수준
손윤호
손진호
송경은
송정흡
신창재
신현석
안중걸
여성우
오두종
오연희
윤상열
윤창섭
이경옥
이대원
이명구
이민석
이민재
이성구
이정기
이창영
이태규
이형욱
정순택
정호영
조현열
차호(2)
최성관
한승범
현향숙
홍경순
홍기영
홍주희
황준하
54회
강대욱
경희수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권영수(2)	장금미	정세주	서선교	**59회**
권영오	장인석	정태호(2)	서종수	강원순
김동철(2)	장현정	최규석	성이경	강준형
김병곤(2)	정동일	최병호	송준화	권성우
김수동	정두선	최율제	우언조	김경환
김시열	정상득	한수일	이덕희	김대현
김영진	정일경	현명섭(5)	이병헌	김삼식
김영환	정창수	황형식	이승걸	김성우
김인겸(5)	정홍우(2)		이양일	김정균
김재홍	지용대	**56회**	이종민(5)	김정민
김준욱	채영수	강창성	정춘식	김종근
김태형	천종욱	권태균	주성진	김철현
김형표	최동호	권태환	천임순	김하균
남윤성	최진교	금동윤	최도희(3)	김학수
도용희	최창혁	김병철	최성곤	노동우
류춘욱	하승우	김익수	허현준	류영호
마도훈	허용진	김인환		문상웅
박낭운	홍성범	김정국	**58회**	박미영
박순우	황보근	김정수	구기영	박용진
박순원		김창희	권오수	백승희
박정배	**55회**	남창우	김문규	백인화
백효종	구본섭	도황	김성기(5)	서인경
서강석	권영무	박완섭	김준홍	서중산
성기영	금종명(10)	박재현	김탁관	서혁준
성승모	김문수	이국형	류상건	손성대
손병우	김병용	이양수	박서정	안형수
손효돈	김상훈	이운기	박용주	유선오
신영철	김승업	이종곤	박정석	유진태
심영보	김정수	임동건	박창열	이강경
양완석	김창호	천근수	배성곤	이강룡
여민희	김태상		서영익	이기준
오승열(3)	문성두	**57회**	서을주	이미정
오태윤	성영호	김동희	서효숙	이상미
유병애	오형호	김문규	신현수	이원훈
유영수	윤광명	김성중(2)	안승훈	이장규
윤경철	이석종	김수영	윤상흠	이춘대
윤정수	이성락	김영애	이대원	장지훈
이경호	이재혁	김용태	이상한(10)	전은주
이상민	이정형	박병준	이성원	전홍배
이승재	이종흔	박성식	이주형(2)	조영미
이영미(2)	이충형	박성진	이헌춘	차승익
이영석	장재권(3)	박준구	정병룡	최현곤
이은영	장필식	박태인(2)	한영철	
이재흠	전일훈	박형근(2)	황정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60회	이종우	민우기	변승득	**70회**
강천일	이준화	박선희	손준혁	김유경
권대구	전영훈	박성현	송선희	신영아
김경주	정진용	박재홍	심진영	최희정
김기연	제석준(2)	반정민	유충목	
김보미	하영애	서문정	윤득헌	**73회**
김소희	홍순만	신경순	윤창호	서창우
김정구		신무철	이동수	
김정근	**62회**	심삼도	이상철	**74회**
김정연	곽선영(5)	여원욱	이진우	권문혁
김진수	권성희(2)	이규엽	이현정	김수정
김태권(3)	김경호	이덕현	장재호	김호찬
김항진	남근하(5)	이명권	정보영	박가영
문덕복	박성빈	이정호(2)	정영원(20)	서관용
박찬정	박진형	이호원	조민현	서안나
서현주	손희강	전성우	조영호	서원우
손봉준	안원일	제갈양진	최윤석	신미선
신동필	이건희	천재민	하경아	신수정
신상훈	이응창			임재광
신재필	정태균	**65회**	**67회**	조윤정
이경림	조병욱	곽경화	문성수	조인지
이광자		김상기(3)	문준호	지성근
이숙희	**63회**	김주경	송승훈	최연경
이응배	곽경필	김찬중	이승훈	최재혁
이태현	구지영	류정임	이용직	현효진
정기재	권소정	박대홍	이정은	홍영기
정동휘	김건엽	이동규	전보영	
정보우	김은경	이상민	정운선	**76회**
정재호	김종열	이선호	조지형	이경민
조유숙	김찬덕	이은호		장세영
한정훈	나승찬	정원욱	**68회**	
	노현주	정진향	남순영	**77회**
61회	손재희	조준형	성우진	김미선
강현욱	유은상	조희준	이원채	김민지
권도승	윤영묵		정병진	김세현
김광훈	윤정보	**66회**	하성조	김준영
김수지	이정미	강봉구		김지현
김준홍	이창현	금윤섭	**69회**	노진
민복기	장우호	김상옥	권도엽	석준호
박우상	조재현	김세영	이학성	여인환
변재호		김영은	장윤환	이경규
송광수	**64회**	김진덕	조민정	이정원
윤종수	권동수	박지현		이현정
이영실	김태엽	백승훈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78회	김재경			
권영기	김재성			
김도훈	김현			
김병철	나동희			
김보연	박지은			
김아람	박현진			
김창연	서영진			
김현미	은효정			
나주용	이주갑			
박정규	이지선			
박준	이효재			
오홍근	이효정			
전호종	임춘근			
진영주	정나리			
최주열	지찬희			
	추윤주			
79회	홍원기			
권오영				
김도형	**83회**			
김명수	권은옥			
박경민	김석민			
박아영	김성은			
송승호	김영은			
윤가영	김의환			
최우곤	김재연			
황승현	김종한			
	김현정			
80회	남은정			
권정은	노희윤			
김세훈	박병건			
김정심	박서영			
김홍년	박준홍			
박정화	오현민			
박찬호	윤지욱			
유병혁	이광민			
윤덕근	이승우			
이명숙	장병주			
이유진	장준혁			
최연주	전종복			
탁지영	최승혁			
황종문	하대룡			
82회	**타교**			
김상원	김갑철			

기수별 전체 기금 납부 현황

(단위: 만 원)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전1회		박언서	10	안형채	20	이한기	30	정환국	110
권상규	20	배치도	10	오성근	20	차승만	10	주영은	10
최익수	10	서정해	20	원병식	100	허탁	20	지중민	10
		최삭덕	20	윤병문	14			채의업	10
전3회				이대부	20	**16회**		최경달	89
김명한	10	**8회**		이상원	620	고태영	20		
		박노옥	20	이종수	20	곽영수	120	**18회**	
1회		오복수	20	정필수	10,121	김만재	640	김경배	10
배강흔	10	전도기	10	최기대	300	김익영	20	김방영	100
송명도	1,720	허동섭	100	한동섭	100	김집	420	김세진	10
						김판조	20	김영곤	30
2회		**9회**		**13회**		석영관	120	김윤준	320
신학진	500	권오기	10	박희명	2,706	송재식	100	김중명	210
이종구	20	권오성	120	서순봉	616	신동수	120	김진욱	120
		김정만	20	송윤규	10	양구열	20	김찬규	25
3회		남영소	100	이달희	20	이강백	200	김천수	20
배상우	20	박윤갑	10	최치상	100	정재홍	110	김형수	20
이규원	20	박정득	20	황남덕	10	홍선희	399	문시갑	520
임종철	100	석종수	20			홍순욱	120	민병훈	30
정덕용	50	안지열	20	**14회**		황기석	210	박동수	20
		육돈상	100	강호균	20			박재식	560
4회		이성관	200	김명호	230	**17회**		박종길	20
김경훈	120			김영적	120	김지영	120	박충근	100
		10회		김영진	20	남태현	220	손해룡	30
5회		김규성	10	서철성	120	박진우	120	신동우	1,210
김회규	10	김승태	20	이기창	10	배기환	20	양묘소	20
이영진	10	김중일	20	최칠권	20	배동직	120	오성호	20
이주걸	400	김태수	20			백의태	220	윤능기	10
최효종	20	이동식	320	**15회**		서주익	20	윤정우	100
허균	20	최근유	100	곽수돈	20	서창석	20	이강수	810
		홍기윤	120	김성화	41	소인영	20	이근영	50
6회				김용복	20	안두홍	510	이동식	279
김기출	30	**11회**		김인현	10	오삼달	20	이명화	200
박하윤	20	김위상	120	김철희	20	오상진	120	이상재	37
배종호	20	김한수	100	김환룡	10	우원형	10	이성구	1,128
정환탁	100	신대식	20	남택승	10	이기영	300	이숙희	20
		이원기	120	박두복	10	이동경	20	이인희	20
7회				백병택	20	이삼영	120	이재근	20
김만달	4,510	**12회**		송조영	120	이상성	320	이철우	320
남궁균	20	박우순	10	이종탁	20	정재규	110	이태호	210

이름	납부금액
이필우	100
전기영	223
정동춘	20
조운해	25,494
황남철	30
황훈	20
19회	
권재성	10
김성중	25
김성호	20
김영수	20
김윤자	10
김익동	1,008
김한동	276
김형근	20
류명하	82
박금자	11
박상성	25
박성대	10
박해수	10
박흥열	20
배수동	47
서병도	10
서휘수	20
손장락	20
양학도	12
오상건	25
유호열	330
이광직	20
이상한	20
이시춘	20
이종담	12
전동우	12
정기홍	20
정훈모	10
조현숙	100
주용환	20
최지환	20
황우익	20
황흥주	10
20회	
김기협	10

이름	납부금액
빈남수	130
오창열	4,018
이기영	20
이해관	30
정병화	25
정우	119
최보영	20
21회	
권용환	10
김동성	10
김성대	100
김종덕	120
박성열	120
송창화	117
유태기	20
이종일	10
장병국	145
정창용	20
차충석	200
최병옥	20
22회	
강현식	10
곽외경	20
곽종원	20
김영권	20
김태순	10
박영훈	200
박충서	68
서영태	20
서원수	20
이동희	10
이열희	10
이형수	20
임학권	520
정우섭	10
정희곤	223
최현호	2,200
23회	
김경수	195
김달수	20
김재하	100

이름	납부금액
김종태	10
김희철	283
오학근	451
오학술	121
이상준	320
장익주	100
최호섭	21
24회	
김경환	3,400
김한빈	20
박무철	20
백성기	200
서상하	20
손태중	210
신장곤	100
양달선	10
이동영	150
이진희	20
이현식	20
이홍기	20
전택준	220
정균용	218
조성래	142
조준승	1,110
최동익	10
한경식	20
함덕상	114
25회	
강중신	120
곽석순	20
김경식	20
김광	20
김동한	20
김병태	20
김상욱	10
김영배	12
김완식	20
김용희	10
김원수	20
남용진	20
노영하	10,120
도창기	20

이름	납부금액
문세광	110
민병택	10
박양규	20
박영관	10
박영해	10
박정열	306
박준식	2,230
박찬우	20
변기수	510
변동길	20
서성탁	400
서영욱	10
서재주	10
소병국	20
송길수	20
신도관	20
신용달	100
안재원	20
안차완	20
예훈해	100
오태환	20
윤병오	11
윤희웅	20
이광호	20
이달원	20
이선규	20
이수동	320
이원순	5
이정호	330
이해영	20
장경식	86
정상진	20
정일동	20
정재훈	192
조중환	10
차상호	100
최형곤	201
하용마	150
한덕기	20
한석문	20
허만하	10
황규택	20
황현규	120

이름	납부금액
26회	
강두경	10
강성규	320
곽각순	102
김강오	20
김근주	24
김동락	95
김병희	10
김상하	210
김원배	20
김장훈	500
김재수	169
김종대	20
김종환	1,220
김진원	100
김치익	20
김태환	20
김희덕	10
박노택	1,670
박병기	20
박상빈	20
박성규	100
박영훈	11
박홍진	20
백충기	2,020
변재욱	20
서동익	120
서치균	100
성창수	20
손건	10
송경오	300
송준영	10
신중열	20
심재기	20
엄영세	20
윤건호	100
윤주식	10
이성구	50
이우홍	374
이원순	20
이은화	20
이재운	20
이표진	220
임태규	100

이름	납부금액
정봉조	525
정승화	10
정원근	20
정태호	195
정회교	206
조기환	25
조태호	510
진정환	20
최성구	10
최홍두	10,190
홍군식	20
황문수	20
황일우	425
27회	
강신학	10
강진무	10
곽판달	20
권성진	120
김경수	223
김성진	20
김찬우	110
박갑석	20
박근수	75
박우춘	20
박재호	86
배광원	20
배효인	25
서동룡	10
서정구	20
성창섭	95
손두목	165
신채범	20
예학성	220
오준섭	10
유대우	200
유우호	20
윤수한	20
윤익진	220
이교연	9,020
이규원	4,800
이만선	37
이민환	20
이병채	190

이름	납부금액
이상배	8
이승현	120
이영식	20
이재범	20
이재복	80
이재양	219
이재인	100
이중길	20
이철상	3,589
이학구	20
이현우	110
장경식	20
전열경	20
정명국	20
정승환	191
정창근	917
조병호	20
조장제	44
조한제	97
최성근	150
최성욱	20
최성천	50
최수년	295
최우진	24
최창록	10
최치교	200
하근수	102
하재창	10
홍성달	23
황한은	10
황한호	70
28회	
고재우	100
곽동수	201
구종수	199
권달만	100
권세훈	20
김병일	220
김봉기	10
김석구	30
김선홍	138
김재식	11,521
김창배	100

이름	납부금액
김형규	414
김희교	200
노수열	90
문한규	20
민종기	10
박양화	60
박진홍	20
배종호	20
서재관	100
염우권	199
오범희	20
유광수	20
윤영길	1,289
이규원	20
이덕희	200
이상계	5,169
이재규	100
이재창	271
이한철	20
이화동	11
정용국	1,201
정준택	20
조근제	20
천덕녕	20
최세영	20
한근섭	223
홍진권	14
홍형식	30
29회	
강상원	10
강석지	200
강진성	10
강태생	20
김광덕	20
김광식	20
김두희	303
김병권	310
김병만	10
김성배	20
김인홍	10
김홍웅	82
나진훈	210
남상하	20

이름	납부금액
도사금	10
박무근	50
박병덕	191
박상곤	73
박성득	20
박영춘	96
박자근	87
박진상	86
백부기	20
백영수	125
백종흠	100
서보상	20
설수길	20
송문원	1,000
송화복	101
신수범	20
예민해	181
유병철	301
윤성직	100
이강목	226
이건화	101
이경수	219
이근후	200
이보근	20
이상석	20
이성렬	20
이승도	80
이재춘	20
이종수	121
이진관	266
임종수	20
장원익	20
장태수	310
정덕재	30
정일현	1,100
정준모	400
정호문	20
조수호	20
한용섭	20
허태득	30
30회	
강석헌	60
강창수	604

이름	납부금액
권득기	1,271
권영진	70
권용주	162
금동혁	20
김규찬	70
김규호	144
김도상	1,141
김병화	371
김석구	117
김세현	221
김영기	96
김영수	65
김원훈	20
김의원	166
김정휘	70
김태묵	50
김판석	70
노명호	50
류동근	20
박수연	163
박재석	70
박한승	50
박희인	70
배병원	171
배성호	20
백정대	10
서정욱	10
서찬수	70
석진길	20
소원영	373
송석호	170
송준철	70
신은식	2,070
안원호	111
안종호	3,350
오장석	471
윤석하	160
이두현	20
이병철	120
이병호	120
이상원	161
이상화	119
이승욱	370
이시래	10

경 북 의 대　동 창 회　기 금　현 황

이름	납부금액
이영우	20
이웅길	1,163
이정창	60
이종길	161
이종택	363
이진영	51
이학수	173
임상근	35
전병석	230
전재규	560
정태수	70
정해돈	20
조세환	451
최익수	10
최종태	20
최창대	20
최형달	100
한홍달	20
31회	
곽달현	20
구자훈	310
권병배	260
권병연	11
김광태	20
김병호	20
김봉석	163
김승래	10
김영명	400
김영창	200
김종모	20
김준	150
남재만	20
류동림	20
류성하	400
박경화	15
박승국	10
박시균	100
백봉수	1,814
변달섭	20
서구덕	70
석재수	400
손승원	20
심달보	70

이름	납부금액
안재두	253
양성기	320
엄정섭	200
오정대	20
유동림	23
유정식	100
유환무	20
이동일	50
이문규	20
이병철	10
이봉조	100
이상원	691
이양우	120
이용권	200
이재호	20
이채현	221
이희석	20
정복수	20
지성우	20
최규태	5
최동철	66
최영달	200
최종두	200
추병근	20
황규성	32
32회	
고철언	260
구문근	30
권영신	5
권영엽	10
김경남	140
김동진	470
김동환	120
김성룡	20
김승팔	10
김정만	120
김창연	20
김태한	20
김홍석	20
김홍태	100
김희태	476
박노대	100
박승보	10

이름	납부금액
박정하	20
배정동	20
서만수	100
서석권	10
신기준	5
신현국	153
신현수	20
오지섭	2
유안언	20
유영선	10
이규신	50
이수영	10
이종학	528
이주원	20
장세국	1,210
장수일	1,110
전종수	20
정기준	20
정인호	20
정일수	17
정재영	235
정철용	20
조대현	20
조복래	20
조태환	310
채병식	300
최동하	588
최원환	20
최종명	20
한영기	20
황인원	20
33회	
강재도	10
권굉보	220
권오석	720
김상철	310
김수철	20
김용배	1,020
김이민	163
김이호	11
김정두	20
김종목	20
김형우	391

이름	납부금액
박문재	120
박양서	10
박용기	10
박원길	10
박재훈	100
박진웅	613
박청길	20
배억두	100
배원길	100
서정목	20
송달효	100
신태규	10
양의석	20
이규보	980
이동훈	120
이석강	167
이죽내	810
이학용	84
인주철	1,212
전명흡	20
전상연	20
전상훈	100
전재욱	20
정상립	710
정재룡	320
정종학	310
정한진	100
정해명	20
조상래	100
최명부	112
황보상	20
34회	
강행복	289
고경환	88
김규성	20
김세호	20
김수길	221
김원재	120
김유문	110
김종섭	120
김충남	321
나우연	110
남위현	20

이름	납부금액
서무삼	10
서상하	120
손위익	120
오상유	220
오영성	20
이규청	177
이두형	10
이용준	40
이용태	20
이장박	20
이태열	10
전상훈	14
정상봉	10
정영식	120
조수자	110
최용교	20
최호섭	199
편영식	10
하길풍	20
한기창	10
35회	
강백현	10,000
고윤표	20
김대조	98
김무현	121
김부년	20
김상도	146
김성환	20
김영희	99
김용언	210
김윤수	20
김장환	103
김태홍	20
김현석	20
김훈남	230
도종웅	195
류창수	20
민병삼	120
박동술	1,981
박삼균	20
박영남	141
변승렬	220
서수지	10

이름	납부금액
손영주	20
송남원	10
이두룡	93
이성일	147
이원순	1,390
이장백	220
이충일	100
장병희	20
장충광	103
정계호	20
정기용	10
정정길	10
지창준	10
최서규	20
최유근	100
36회	
강병조	120
견일수	101
권국현	120
김무룡	20
노관식	10
문시언	220
박노춘	29
박도수	400
박형규	119
백용현	523
백철홍	20
손건부	101
손영우	10
송풍호	10
심청택	20
염덕준	5
윤정직	10
이동행	50
이영하	510
이정범	1,370
이창수	144
임종선	120
장기용	10
장신형	120
정수광	20
정영기	490
정희자	30

이름	납부금액
최영인	100
허진철	10
황재욱	20
37회	
강복수	115
권굉우	295
권욱진	10
김광수	20
김명한	10
김신동	10
김연택	20
김정만	46
김종률	483
남영근	20
남팔수	10
문원만	20
문종웅	122
박기호	70
박노선	271
박동성	280
박성대	10
박영철	200
박의현	610
박홍진	10
백인기	313
성기태	200
신홍식	477
안영규	94
안진상	10
오현수	56
윤융삼	120
윤재호	200
이귀란	50
이동구	351
이원기	38
이원락	120
이정우	100
이청혜	80
이헌용	100
이홍일	2
전수한	1,007
정구용	20
정동일	470

이름	납부금액
정문화	20
정성수	1,020
조남제	20
조수호	110
최용환	199
최준영	10
최현만	10
하청길	177
황명주	40
38회	
곽용철	60
구본출	1,650
권정윤	1,410
김관식	83
김규태	1,106
김민상	100
김송명	10
김수	310
김유탁	100
김은상	20
김춘탁	20
김태곤	111
김태준	20
김풍택	906
김흥대	20
박동춘	110
박무길	200
박복환	10
박정한	100
서종우	100
송달원	10
안성훈	10
윤성도	10
이성동	48
이승정	100
이승호	89
이원기	315
이일웅	35
이장환	50
이정수	100
이충길	10
장성익	10
전재복	10

이름	납부금액
정영복	74
지선득	20
최두석	50
최선길	20
최성협	89
최영창	100
39회	
강덕식	1,864
곽정식	555
곽평순	20
김건회	20
김난희	100
김능수	10
김인식	120
김희택	180
도분순	20
문영길	20
문정웅	1,279
박건정	2
박노삼	203
박란규	100
박순천	442
박연묵	1,120
박진현	110
서영호	20
서인수	1,110
안종철	3
우성구	60
우원호	20
이동민	10
이종태	300
전의식	69
정용한	20
정재명	100
정정표	20
정태훈	820
정해건	105
조남근	1,279
조호철	520
조희웅	20
최동수	100
허동은	133

이름	납부금액
40회	
강달삼	20
고재휴	49
곽재영	329
권오극	5
김선우	100
김성호	101
김신근	5
김영규	10
김옥동	216
김완섭	408
김은우	30
김일경	304
김재숭	203
김종환	477
김주열	113
김징균	2,602
김홍조	103
김희숙	120
남재우	20
도영구	303
도재욱	278
박병렬	158
박병철	220
박복음	20
박순록	20
박영호	223
박종한	25
박준식	10
배정인	10
서성룡	50
서정규	216
서준수	20
손승원	95
유병욱	103
윤병철	103
이동화	50
이성환	100
이승기	199
이영헌	570
이학서	55
이호연	10
장길동	103
장상식	204

이름	납부금액
전석길	113
전재은	748
정기환	10
정봉진	5
정재화	319
조규홍	100
조성룡	300
주종윤	10
채종욱	120
최수승	75
한경훈	180
한승세	135
41회	
강임주	703
고복현	20
구자영	10
김경년	102
김곤홍	263
김문섭	5
김병헌	25
김석원	28
김성학	292
김세환	70
김시열	601
김영철	20
김원호	1
김준한	5
김진만	55
김현철	62
류영석	20
박경동	102
박근목	3,096
박우현	10
박윤규	290
박일수	390
박종인	30
박효천	200
배상도	15
배재기	424
배효근	103
백명규	122
백옥지	113
변인수	84

이름	납부금액
서보양	15
서정희	400
손수상	10
안기헌	54
안성열	2,565
여운재	74
오상염	83
윤영국	1,503
은충기	44
이건수	332
이달우	100
이동수	38
이상도	123
이상범	440
이상흔	2,764
이재우	103
이태석	10
임만빈	10
임태진	10
장명익	200
장봉국	59
장한기	103
최광식	301
최덕현	182
최한용	64
하지운	150
홍정길	613
황규흥	72
42회	
곽정재	10
권태찬	10
김성구	50
김용주	605
김용탁	82
김의홍	146
김종식	101
김진모	10
김철규	133
김철수	707
남해수	30
문덕균	280
방필영	20
변영우	11,154

이름	납부금액
서석주	203
석준호	15
송재권	125
신내철	100
안치효	220
유동명	40
은종대	1,150
이광열	197
이규인	192
이병승	50
이상호	1,078
이정근	405
이철재	50
임해수	510
전병길	5
정무달	205
정제명	506
정헌수	50
조동택	300
조만석	100
최병연	135
최원석	114
최흥교	26
추연만	155
추우홍	50
현성택	325
43회	
강승원	60
강정훈	60
권광인	60
권오영	64
권종수	103
권창운	1,860
김건우	120
김광록	60
김교완	60
김기주	128
김대석	88
김보완	1,603
김성한	60
김세동	60
김수복	120
김여희	70

이름	납부금액
김정도	84
남수현	60
민병문	60
박광서	80
박노문	465
박동철	149
박병탁	60
박봉훈	90
박상열	260
박승해	60
박재식	129
박재우	252
방용준	82
방인화	69
배연수	120
백태원	172
손경식	615
송인달	60
신경호	60
안대덕	81
안무식	60
양원석	8
오태원	160
우성구	117
유용운	60
육순황	100
윤덕구	439
이광숙	166
이광윤	135
이규석	70
이길모	60
이상무	260
이진식	388
임윤규	160
임정근	109
장병준	195
장사상	411
장운하	97
전상식	419
전진곤	1,206
정덕수	60
정상범	60
정수기	60
정화선	595

이름	납부금액
조동규	995
조병권	725
조성경	100
조영철	416
조원현	98
지용철	13,077
최수영	60
최수한	84
최시호	366
최종의	60
추연수	60
하인선	128
홍태근	90
황보백	145
44회	
강신수	93
곽규식	348
김경선	129
김광훈	253
김권배	10
김법완	165
김애라	10
김옥배	10
김인호	10
김재도	77
김종훈	80
김지홍	101
김택훈	10
박광우	47
박영석	14
박영재	137
박완석	100
박인규	10
배옥석	10
배형일	199
백상헌	219
백운이	316
변영수	20
심일청	1,083
오천석	101
이경화	94
이상숙	10
이석균	505

이름	납부금액
이웅렬	121
이윤상	4,373
이재민	30
이정권	105
이정규	98
이태성	10
임탕식	178
장태식	52
전명숙	69
정상호	200
조영래	195
조영호	100
한건호	50
함인석	1,599
홍승근	101
45회	
고봉환	245
김광우	100
김덕하	100
김도원	2,406
김성화	984
김영욱	210
김영준	1,045
김용순	48
김정수	400
김종훈	289
김행미	363
김홍태	198
남상재	99
박병규	300
박용일	20
박진석	1,780
배선익	93
백철운	199
변영주	500
신현주	102
안도환	105
유병하	21
유성호	88
유완식	793
이기호	179
이달우	100
이병수	1,169

이름	납부금액
이석형	20
이원길	559
이종열	45
이종태	99
이호성	98
전영준	10
정기묵	300
정만진	84
정희영	30
채종민	800
최영욱	1,470
하종섭	99
허정욱	109
허찬희	30
홍영기	31
홍진교	3
황성규	316
46회	
강동구	100
강명석	100
고병구	132
권건영	10
김대환	1,120
김병준	50
김석찬	189
김세웅	116
김인규	200
김인택	403
김일봉	30
김재룡	10
김중구	129
김철래	100
김홍	10
김흥식	10
박승구	20
박영모	50
박우순	30
박의수	10
박태정	253
반재율	40
백승기	700
백승조	100
백영일	150

이름	납부금액
서성조	130
서일숙	50
서재성	15
성주경	231
손재경	1,100
송가이	3
송홍석	10
신세원	855
오세진	253
윤태현	30
이강일	50
이병진	100
이상도	10
이상찬	30
이수정	20
이은기	20
이인걸	894
이장진	100
이재백	480
이재석	119
이창	378
이창익	100
이탁	10
장기호	13
장재국	30
정선권	60
정준헌	99
정철호	10
조시복	49
차순도	10
채광수	30
최병희	30
한기환	10
황창하	200
47회	
강상대	889
고순봉	60
곽완섭	30
권기영	10
김광수	10
김교선	695
김성조	100
김수용	50

이름	납부금액
김영근	30
김용신	109
김인주	600
김장희	113
김제형	49
김종호	1,221
남복동	185
박성배	10
박영복	30
박종대	30
백승인	92
변진석	210
송광순	10
신순희	544
유영구	437
윤경식	30
윤만모	20
윤확	100
이상길	30
이숙형	30
이재준	155
이준희	99
이지욱	10
장신민	30
전동석	10
전민	100
정만홍	77
정성광	603
정영환	467
정용재	30
정지윤	105
조승호	200
조희중	314
최광호	93
최규태	10
최재동	30
최창필	100
허석	100
48회	
권영철	179
김기식	10
김두환	500
김복연	90

이름	납부금액
김원섭	217
김윤년	10
김인섭	180
김인호	160
김일환	296
김지성	129
김창윤	78
김항재	674
김형진	100
류수현	192
문병천	201
민영기	100
박운정	100
박일형	1,028
박재복	30
박정세	30
박준호	224
박창융	440
서경진	263
서민호	10
손계학	201
손동렬	15
손명원	30
손은익	10
손혜경	91
신명숙	86
안문영	589
양승윤	1
이경열	109
이규원	59
이근대	100
이내호	131
이동진	61
이동철	15
이동헌	195
이수동	100
이숙희	573
이연생	100
이왕복	154
이용수	43
이용우	30
이우형	177
이윤순	311
이인환	10

이름	납부금액
장봉현	525
전종완	100
정능수	500
조영섭	89
조지호	300
채성철	800
천병렬	15
최붕태	20
최성만	100
최세영	10
탁기식	140
하정상	88
한승욱	30
홍순도	118
49회	
강구봉	100
강명수	167
강순병	110
강철형	510
고철우	387
권세일	391
김기산	500
김동규	50
김영환	100
김인자	300
김정식	501
김종서	1,405
김주호	110
김진우	129
김현준	143
김혜영	170
김호준	1,795
김효석	130
문신길	30
문충열	100
박기홍	100
박원대	175
박장환	99
박정태	67
박철희	10
배경일	159
배한익	367
배홍갑	201

이름	납부금액
서병헌	66
서상일	140
서상철	33
서장수	783
손석수	223
손찬락	205
송국현	106
송원영	40
송재영	100
송중원	3,010
신세종	100
신제균	117
안욱	177
오성태	100
오수희	733
오영철	201
이관식	605
이관호	210
이광열	200
이병기	100
이봉우	194
이승철	600
이신하	100
이재경	200
이재성	100
이정국	94
이형일	20
임재양	303
임효덕	130
전덕하	100
정경재	100
정상윤	70
조영수	600
조정현	400
천만희	31
천종률	54
천종율	43
최영철	1,640
한창호	100
홍상현	105
50회	
강동기	85
곽정호	91

이름	납부금액
권영근	76
길영태	1,386
김규상	67
김금주	77
김삼열	130
김상유	138
김수천	100
김재연	485
김재황	65
김정철	568
김종윤	86
김종흥	94
김준식	10
김호각	90
남필훈	30
박관규	10
박귀동	1,350
박문흠	635
서노교	195
서억수	78
서정욱	99
석대식	100
손경락	30
손윤경	720
안기영	274
우영훈	10
유빈서	74
이동길	89
이만기	1,075
이상락	100
이성운	30
이영환	90
이유철	683
이의효	101
이인규	10
이재태	1,139
이정철	20
이종근	200
정병욱	69
정병천	100
정현대	181
조현숙	329
지동하	43
최영택	74

이름	납부금액
최재호	100
추동호	89
함희원	94
황용순	91
51회	
강성희	79
강수찬	930
강인구	187
강재원	39
고삼규	1,287
권귀련	30
권석룡	30
권오종	87
권일훈	87
권중혁	20
권태우	87
김경수	30
김광만	132
김광석	78
김대연	87
김동석	707
김무원	137
김병헌	79
김병화	167
김신윤	520
김인영	79
김장락	107
김재왕	537
김태준	117
김현구	30
문현창	13
박만규	92
박봉기	187
박상운	100
박성민	437
박우상	7
박윤현	13
박은미	35
박태준	30
방종경	267
백승남	19
서순애	102
성차경	15

이름	납부금액
성후식	120
손희철	117
송광익	129
양상호	143
양원병	178
오동원	107
유경재	88
윤여득	117
이경민	160
이경수	137
이경영	87
이기만	137
이명우	195
이병태	30
이상복	39
이성희	232
이우녕	87
이원석	87
이원태	20
이재구	203
이헌수	137
이형종	100
임영미	1,219
임청호	87
장기호	68
장내원	100
장대성	444
장병원	87
정경동	20
정수영	87
정연웅	30
정웅표	87
정인권	300
정철희	87
조충래	117
지성구	117
최성근	87
최연극	30
하용수	100
한금주	72
한상철	93
허달영	366
현명철	268
홍성태	87

이름	납부금액
홍영애	129
황영목	72
52회	
강민구	174
강병직	2,180
곽동협	675
곽시영	75
곽철승	59
구본신	225
권경훈	375
권순훤	150
기세길	375
김경식	225
김기홍	75
김도수	90
김동억	94
김봉재	3,950
김상근	94
김성록	15
김순덕	192
김승일	66
김영두	130
김영조	150
김용선	50
김인산	1,261
김재홍	77
김종일	75
김종호	350
김준우	100
김철규	102
김헌수	225
김효경	130
나건연	1,250
남문진	150
남혜주	111
도은식	375
마인열	21
민병국	1,075
박동보	74
박동우	1
박성파	400
박승준	66
박신영	1

이름	납부금액
박우용	75
박일순	375
박재용	599
박재율	225
박창근	250
배성일	150
배양규	6
백승찬	2,444
백원진	320
손구현	370
송국평	500
심원보	30
이기훈	240
이무상	1,000
이상평	74
이성원	160
이순화	27
이우기	25
이장철	150
이재동	77
이정안	75
이종명	299
이종오	92
이택후	674
장원표	2,850
장해운	250
전상중	225
전상훈	79
전시열	89
정경희	94
정명희	75
정용식	189
정종철	148
정태훈	45
조병채	2,365
조완석	150
최병흔	125
최상호	357
최석용	1
최일석	325
최정규	375
추진신	150
하정희	468
한상철	50

이름	납부금액
함소희	222
홍성권	75
황윤진	275
53회	
강헌구	98
강희천	64
권순학	200
권영식	69
권종설	63
금학조	63
김경률	61
김규태	76
김도헌	100
김동욱	30
김동찬	63
김명성	63
김세연	63
김숙영	75
김시오	559
김영호	94
김용림	500
김원태	73
김재선	53
김정란	63
김정용	22
김종삼	50
김종원	63
김희진	46
나병천	105
류한업	15
류형우	162
박매자	41
박민하	94
박병규	153
박세영	401
박세협	69
박창순	59
배재용	69
변정환	63
서경란	87
서중환	432
서창수	62
손경호	82

이름	납부금액
손구현	5
손수준	3,154
손윤호	93
손진호	299
송경은	203
송도영	30
송정흡	63
신언성	74
신창재	63
신현석	63
안중걸	63
여성우	189
오두종	91
오연희	62
육순황	60
윤상열	62
윤창섭	67
이경옥	63
이구희	150
이대원	99
이명구	63
이민석	229
이민재	101
이성구	89
이재동	5
이정기	163
이종기	53
이창영	81
이철	32
이태규	101
이한일	900
이형욱	63
장유석	15
정순택	743
정호영	331
조현열	63
조희태	1,300
차호	140
채석수	50
최성관	963
한승범	47
한창희	1,452
현향숙	62
홍경순	594

이름	납부금액
홍기영	63
홍주희	63
황순구	13
황준하	66
54회	
강대욱	109
강영모	240
경희수	1,418
권삼	55
권영수	144
권영오	1,339
김건오	74
김덕영	40
김덕윤	40
김동철	186
김문연	40
김민수	30
김병곤	144
김수동	1,041
김승호	40
김시균	40
김시열	92
김영진	107
김영환	241
김원엽	40
김윤수	40
김은배	40
김의현	40
김인겸	3,257
김재홍	139
김준욱	143
김태형	92
김형표	20,579
김홍환	40
남윤성	142
도용희	141
류성렬	40
류성훈	40
류춘욱	92
마도훈	172
마성대	80
박낭운	446
박순우	92

경 북 의 대　동 창 회　기 금　현 황

이름	납부금액
박순원	141
박정배	92
박한배	40
백효종	121
서강석	120
서창식	40
서희석	300
성기영	1,281
성승모	191
성열오	523
손병우	141
손효돈	145
신영철	121
심영보	133
안영호	40
양완석	198
엄재화	40
여민희	118
오승열	225
오태윤	121
유병애	198
유영수	125
윤경철	343
윤영팔	40
윤정수	215
이경호	310
이동현	40
이미경	40
이상민	339
이상화	40
이승재	92
이영미	144
이영석	142
이은영	92
이재흠	164
이헌영	40
이효성	40
장귀련	40
장금미	52
장인석	134
장태원	40
장현정	85
정규식	60
정동일	109

이름	납부금액
정두선	141
정상득	113
정일경	141
정창수	124
정홍우	435
조근태	195
주대현	40
주인수	40
지용대	115
채영수	270
천종욱	223
최경수	40
최광진	74
최동원	100
최동호	464
최진교	2,048
최창혁	121
편도철	100
하승우	612
허용진	201
홍성범	118
황보근	142
황정한	15,684
55회	
강경훈	39
강도원	5
강래균	39
구본섭	106
권영무	62
권장구	139
금종명	659
김송	39
김건순	1,000
김광원	39
김귀란	39
김대현	39
김동환	39
김명규	39
김문수	128
김범진	69
김병용	164
김상훈	337
김성엽	91

이름	납부금액
김성철	39
김숙희	139
김승업	112
김승태	39
김신우	39
김은영	69
김인수	39
김재우	39
김재철	39
김정수	133
김정호	69
김종진	39
김창호	105
김태상	133
김하식	539
김한복	39
김홍달	39
김희경	39
남대희	39
문성두	99
박기호	39
박선후	39
박성근	1,199
박승우	39
박영명	44
박영호	39
박위태	20
박윤정	39
박재기	39
박철호	69
박혜경	39
배도호	106
백호길	39
상영호	39
서광휘	39
성영호	139
손상균	139
손형규	849
송소현	39
신동건	39
신왕식	39
신정애	39
신준호	39
신충곤	59

이름	납부금액
신현호	39
양시강	39
양정선	39
오형호	133
우대영	39
우병철	39
유국선	39
유도환	39
유미경	39
유정우	39
윤광명	133
이남혁	39
이동석	39
이명기	39
이석종	438
이성락	99
이수형	69
이시동	39
이영환	39
이원기	39
이윤근	39
이응천	39
이재혁	118
이정형	133
이종흔	144
이충형	133
이태우	39
임시영	39
임종섭	39
장재권	278
장제주	1
장필식	128
전일훈	276
정대윤	39
정복현	39
정세주	69
정승필	39
정우식	39
정유근	39
정태호	179
정학영	39
정현주	789
정후재	39
조성재	39

이름	납부금액
조영환	39
조용근	139
조지희	39
조창호	39
채민수	39
최경희	39
최귀애	39
최규석	188
최병호	334
최영근	39
최율제	149
최정현	39
최한철	39
한석	65
한동길	39
한수일	217
한준열	39
허동명	39
허주희	39
현명섭	427
홍성표	39
홍승표	39
황은경	39
황종문	39
황중하	39
황진복	39
황형식	126
56회	
감신	200
강창성	103
권태균	345
권태환	302
금동윤	65
김범주	45
김병철	60
김수균	1,760
김영인	40
김익수	153
김인환	60
김정국	149
김정수	93
김창희	99
남창우	102

이름	납부금액
노명호	36
노선주	13
도황	113
박완섭	113
박윤엽	5
박재현	69
박정철	100
박헌식	190
성준제	1,900
오창욱	1,090
이국형	565
이양수	4,839
이운기	232
이종곤	87
임동건	501
전석구	100
정성훈	130
조경신	50
천근수	69
홍원표	300
황윤근	10
57회	
김동희	85
김문규	445
김성기	500
김성중	144
김성호	50
김수영	70
김영애	169
김용태	235
김용현	720
김은숙	100
김정열	1,240
김철진	100
동가진	30
박동원	200
박병준	153
박성식	79
박성진	39
박정철	2,800
박준구	119
박태인	417
박형근	162

이름	납부금액
배용철	10
서경미	20
서선교	492
서종수	132
성이경	132
송준화	988
우언조	69
이덕희	59
이병헌	319
이승걸	152
이양일	51
이양현	200
이종민	175
이준호	13
정병화	30
정춘식	94
조경제	100
주성진	100
천임순	78
최도희	41
최성곤	110
최형경	30
추성욱	30
탁원영	460
허현준	151
58회	
강영순	150
구기영	102
구태본	340
권오수	68
금민수	50
김문규	74
김문호	230
김성기	265
김영대	130
김준홍	53
김지화	100
김탁관	60
류상건	78
마상혁	5
박기수	30
박서정	69
박영진	100

이름	납부금액
박용주	60
박정석	105
박창열	99
배성곤	66
서영익	99
서을주	94
서효숙	69
소형태	90
신승호	450
신현수	68
안병철	640
안승훈	427
양은경	415
오주현	15
윤봉호	100
윤상흠	69
이대원	105
이상한	3,732
이성원	53
이주형	94
이헌춘	58
정병룡	212
최정일	50
한영철	258
황정현	201
황정환	500
59회	
강원순	68
강준형	95
공현희	400
권성우	97
권혁만	900
김경환	102
김대현	53
김삼식	87
김상헌	910
김성우	67
김정균	53
김정민	86
김종근	87
김철현	400
김하균	60
김학수	78

이름	납부금액
노동우	95
류영호	95
문상웅	59
박미영	69
박용진	95
백승희	95
백인화	96
변창렬	22
서인경	52
서중산	95
서혁준	177
손성대	94
손현호	90
신동규	90
안형수	105
예미경	27
유선오	87
유진태	103
윤길숙	58
윤준혁	225
이강경	65
이강룡	69
이기준	87
이명선	90
이미정	95
이상미	69
이영삼	30
이원호	61
이원훈	6
이장규	97
이춘대	95
장지훈	87
전은주	95
전홍배	67
정기하	43
정정은	30
조영미	94
조재현	6
조준용	100
지문종	39
차승익	198
최현곤	100
한형수	217

이름	납부금액
60회	
강천일	69
권대구	94
김경주	94
김기연	88
김보미	94
김상걸	200
김소희	79
김정구	102
김정근	94
김정연	94
김진수	660
김태권	127
김태석	174
김항진	94
문덕복	66
박재찬	118
박찬정	100
배호상	360
백승혜	450
사공미	42
서현주	94
손봉준	94
신동필	94
신상훈	67
신재필	99
양동렬	720
오상호	90
오승훈	90
이경림	94
이광자	94
이숙희	53
이응배	150
이태현	95
임시수	30
정기재	94
정동휘	54
정보우	94
정재호	1,044
조성	15
조유숙	94
한정훈	594
홍은희	180
황정욱	475

이름	납부금액
61회	
강지원	78
강진영	26
강현욱	89
고영민	950
권도승	4
김광훈	94
김기영	41
김병준	34
김수지	67
김영탁	48
김준홍	84
김태헌	50
민복기	5,038
박선영	20
박우상	32
박진영	18
박현숙	21
변재호	82
서영진	450
송광수	104
신동주	450
신태현	53
유길종	15
유택규	19
윤종수	46
이병육	15
이영실	98
이정훈	981
이종우	157
이준화	105
이채용	120
임동현	100
전영훈	119
정진용	60
정호윤	300
제석준	154
추호식	5
하영애	129
홍순만	100
62회	
곽선영	520
권성희	111

이름	납부금액
김경호	4
남근하	330
문철준	100
박성빈	103
박진형	201
손희강	74
안원일	101
윤성민	15
이건희	101
이수형	30
이응창	69
정진욱	819
정태균	65
조병욱	58
조진흠	90
한만식	20
황성주	6,735
63회	
곽경필	59
구지영	91
권소정	66
김건엽	369
김광우	900
김은경	90
김종열	95
김찬덕	99
나승찬	59
노현주	96
손재희	96
양근진	332
우창근	15
유은상	199
윤영묵	96
윤정보	31
이정미	91
이지인	90
이창현	31
이창환	29
장우호	596
전태형	9
정승희	14
정충일	100
조재현	90

이름	납부금액
64회	
권동수	60
권순백	450
김여향	9
김태엽	11
민우기	211
박선희	96
박성현	70
박재홍	60
반정민	100
서문정	78
신경순	60
신무철	100
신용환	18
심삼도	83
여원욱	69
이규엽	94
이덕현	31
이명권	55
이영두	31
이우근	2,898
이은주	100
이정호	158
이창환	23
이현주	450
이호원	99
전성우	108
제갈양진	109
천재민	31
한창규	630
65회	
곽경화	101
김난희	500
김상기	153
김주경	50
김찬중	69
김태훈	16
류정임	89
박대홍	60
박창영	90
이동규	60
이상민	91
이선호	64

이름	납부금액
이수현	6
이은호	31
장원욱	1
정원욱	68
정진향	39
조준형	75
조희준	60
채포희	34
최세호	9
66회	
강봉구	6
권오경	544
금윤섭	6
김나경	100
김상옥	63
김세영	105
김영은	1,064
김진덕	6
류현욱	72
박지현	6
백승훈	972
변승득	96
손준혁	6
송선희	6
심진영	6
유충목	56
윤득헌	6
윤창호	98
이동수	6
이상철	85
이성만	900
이수현	65
이재혁	15
이정래	90
이정호	320
이진우	68
이현정	6
장재호	6
정보영	6
정영원	810
조민현	99
조영호	6
최윤석	6

이름	납부금
하경아	6
67회	
김은주	6
문성수	99
문준호	89
송승훈	65
이승훈	60
이용직	65
이정은	83
전보영	85
정운선	85
조지형	78
차영창	180
황승욱	37
68회	
남순영	58
성우진	58
이경열	39
이용범	90
이원채	509
이재일	23
정병진	53
하성조	59
황준경	900
69회	
권도엽	150
김성욱	13
박신률	4
배영조	52
우고운	50
이학성	59
장윤환	509
정덕원	64
조민정	67
70회	
김유경	52
박남윤	500
신영아	67
임태규	30
조장희	9

이름	납부금액
최희정	93
71회	
김지호	450
남경훈	13
성현철	1,800
오수훈	90
72회	
박선민	16
석양기	75
최원호	10
73회	
서창우	71
정홍대	90
74회	
강경모	64
강진영	11
고혜진	24
권문혁	105
권미정	8
김균희	37
김동협	57
김미영	12
김수정	105
김윤정	31
김주희	53
김한바로	22
김현숙	20
김혜원	71
김혜인	37
김호찬	105
김홍식	78
김희준	55
목정민	37
문나연	8
문유호	72
박가영	105
박동찬	64
배종덕	61
배지혜	60
배현석	25

이름	납부금액
서관용	105
서안나	105
서원우	105
서현애	26
성수경	64
손원수	37
송재민	47
신근영	37
신미선	105
신수정	104
신지연	9
심민성	47
안용철	64
오정은	37
윤지원	97
이정훈	42
이채윤	37
이현철	16
임재광	105
임현정	37
임혜원	32
장은정	57
장정식	56
전고운	27
전범수	52
정윤령	15
조윤정	105
조인지	105
지성근	105
진미경	37
차현욱	180
최민혜	37
최연경	105
최재영	22
최재혁	105
최지영	55
하미진	62
허준	56
현효진	105
홍영기	74
황준현	9
75회	
이경민	54

이름	납부금액
허은영	19
76회	
강민지	77
강종완	67
공호련	19
김민철	39
김상화	17
김석찬	6
김성욱	46
김효진	7
박기현	13
박효민	46
송창현	90
신동욱	13
신영민	8
양동진	8
이경민	87
이준호	36
장세영	87
정희연	27
채수열	19
황두연	76
황인아	7
77회	
고경균	33
김동섭	1
김미선	74
김민지	75
김성진	1
김세현	75
김영중	6
김준영	75
김지현	75
노진	75
배상근	6
배수현	56
석준호	74
송준혁	7
안수현	24
여인환	75
이경규	75
이용훈	44

이름	납부금액
이정원	74
이창현	6
이현정	73
정주영	1
진윤미	1
홍채문	68
78회	
권영기	63
김덕영	15
김도훈	63
김병철	63
김보연	63
김숙경	29
김아람	62
김정환	9
김지은	22
김창균	9
김창연	63
김현미	63
나주용	63
박은희	22
박정규	63
박준	6
오홍근	62
이숙희	41
임정아	55
전호종	62
정윤영	49
정현철	41
조효정	15
진영주	63
채상훈	39
천혜진	13
최영연	32
최주열	63
최진혁	62
홍한표	270
79회	
권수현	7
권오영	51
김도형	50
김명수	51

이름	납부금액
김재우	3
김한나	20
박경민	51
박아영	51
송승호	51
윤가영	51
이은지	10
이현주	3
임장환	3
최선하	10
최우곤	51
황승현	51
80회	
강동진	30
권정은	42
김기범	13
김세훈	42
김세희	34
김승범	22
김윤안	17
김재환	15
김정심	42
김종헌	16
김홍년	41
박정화	42
박찬호	42
안수현	11
안정민	1
양승윤	19
오효정	1
유병혁	41
윤덕근	41
윤현수	49
이명숙	42
이유진	42
이종인	10
이혜림	39
정승연	12
정혜진	32
최연주	42
최우찬	1
최준설	20
탁지영	41

이름	납부금액
한경구	11
황종문	41
82회	
권준현	4
김병준	4
김상원	13
김재경	14
김재성	9
김제연	11
김현	14
나동희	14
박지은	13
박현진	6
서영진	14
은효정	13
이승환	1
이주갑	14
이지선	14
이효재	14
이효정	14
임춘근	12
정나리	14
지찬희	14
추윤주	14
홍원기	14
83회	
김석민	3
김영은	3
김의환	3
김재연	3
김진	2
김현정	3
남은정	2
노희윤	3
박병건	3
박서영	3
박준홍	3
오현민	3
윤지욱	2
이광민	3
이승우	2
장병주	3

이름	납부금액
전종복	2
최승혁	3
하대룡	3
타교	
김갑철	96
기타	
제16회 동기회 일동	1,000
제18회 동기회 일동	1,000
제24회 동기회 일동	570
제32회 동기회 일동	1,395
제33회 동기회 일동	450
제37회 동기회 일동	3,900
제38회 동기회 일동	3,000
제39회 동기회 일동	4,000
제40회 동기회 일동	4,000
제41회 동기회 일동	4,000
제42회 동기회 일동	3,600
제44회 동기회 일동	5,040
제45회 동기회 일동	6,180
제46회 동기회 일동	6,000
제47회 동기회 일동	15,800
제48회 동기회 일동	10,000
제49회 동기회 일동	9,500
제50회 동기회 일동	9,500

이름	납부금액
제51회 동기회 일동	10,620
제52회 동기회 일동	13,500
제53회 동기회 일동	13,500
제54회 동기회 일동	9,000
제55회 동기회 일동	9,000
제56회 동기회 일동	13,500
제57회 동기회 일동	9,000
제58회 동기회 일동	9,000
제71회 동기회 일동	500
제78회 동기회 일동	180
경북대병원 기금교수회	270
경북대병원 성형외과 동문회	4,500
경북대병원 외과 동문회	1,260
경북의대 신경과학교실	3,522
경북의대 울산동창회	1,000
동문테니스회	1,680

이름	납부금액

이름	납부금액

북미주지부 장학기금 납부 현황

이름	납부금액
17회	
김태훈	$800
18회	
유춘식	$300
윤주덕	$400
지성해	$20,300+1,000,000
허규숙	$500
19회	
서욱	$500
22회	
김연호	$20,390+2,000,000
김풍환	$100
25회	
고석경	$300
김규진	$500
전성균	$400
정낙진	$500
허륭	$100
26회	
김종구	$500
이세영	$100
조종수	$100
27회	
김재호	$100
양남도	$900
유시홍	$400
28회	
강경훈	$300
김상완	$500
김용명	$100+2,200,000

이름	납부금액
여병택	$500
여웅연 · 강반(31회)	$101,600+4,200,000
이상국	$500
이해성	$100
임병우	$100,400
최중식	$400+3,000,000
29회	
고우련	$100
곽연식	$100
곽현주	$100
김수생	$400
김진길	$100
김진대	$500
심재훈	$500
이만희	$300
정병락	$500
조광재	$550
조홍래	$500
30회	
강자구	$800
김범주	$1,000
노대식	$1,000
노재문	$100
노태균	$1,400
박현동	$700
박희성	$1,000
손대익	$600
송수헌	$500
송희재	$700
신현원	$400+550,000
심규원	$500
이관우	$500
이치민	$900
정해관	$500
지연숙	$300

이름	납부금액
31회	
강반 · 여웅연(28회)	$101,600+4,200,000
김경수	$1,300
김재찬	$4,600
김재철	$300
김정식	$500
김찬수	$1,200
김창환	$200
김태수	$100
김학진	$100
노인환	$1,500
박노종	$1,400
배익학	$900
서구원	$900
송계원	$600
신중덕	$200
신현찬	$1,200
안태룡	$500
유상호	$10,400
유진우	$12,500
이석윤	$1,000
이영해	$10,500
이종만	$1,500
임병선	$1,000
임정규	$1,000+994,054
조명래	$850
지용한	$1,400
하영재	$200
황기준	$500
황세환	$2,300
32회	
강대명	$500
강영창	$600
강창근	$700
고재명	$900
구욱헌	$1,100
김경현	$100

이름	납부금액
김광환	$500
김성용	$500
김정환	$1,100
박재무	$1,000
박희도	$500
서태준	$6,000
송종규	$1,100
신영자	$100
안영환	$1,000+6,480,426
오상완	$1,700
이성수	$800
이승영	$1,000
이영남	$500
이영식	$500
이장우	$500
이재수	$1,400
이정윤	$1,400
이종두	$1,100
이창윤	$500
홍창의	$500
황해만	$500
33회	
강석봉	$1,000
고광빈	$1,300
구자권	$200
김부웅	$1,100
김수용	$1,600+10,162,000
김영훈	$1,200+100,000
김유사	$600+100,000
김한주	$1,400
김홍	$400
김희훈	$1,400
서상무	$1,000
서한규	$1,600
손순천	$1,400

이름	납부금액
신동수	$600
윤징자	$4,500
이박무	$1,000
이수광	$4,500
이영화	$600
이용웅	$12,500
이태량	$1,000
임청	$2,500
장문찬	$1,200
장성길	$1,200
전무영	$1,100
정광혜	$1,000
최대식	$400
탁원균	$1,400
홍래복	$1,400
34회	
고충환	$10,300
권기호	$1,100+2,000,000
권석찬	$400
김기춘	$500
김덕영	$200
김동윤	$500
남상규	$400
문정오	$300
박내홍	$200
박대선 · 정근영(34회)	$2,800+3,000,000
박정태	$500
손룡교	$200
신인건	$500
신철야	$400
안정홍	$300
육정혜	$900
육종윤	$500
이규청 · 이청혜(37회)	$31,000+5,800,000
이기녕	$100
이길부	$200

이름	납부금액
이영길	$200
이영재	$200
이재철	$200
이정두	$200
장춘식	$200
정국	$200
정근영 · 박대선(34회)	
$2,800+3,000,000	
정해진	$500
정호성	$400
조남재	$200
최성정	$500
최인식	$200
최준혁	$100
하재덕	$500
35회	
강백현	
$300+100,000,000	
김광준	$400
김문양	$500
김성원	$400
김승조	$400
김영길	$500
김영철	$400
노여주	$500
박대원	$100
박순호	$400
육정자	$300
이상준	$600
임무웅	$500
정수진	$4,800
정의일	$100
정태수	$400
최임석	$700
허련	$300
36회	
김병옥	$400
김정휘	$100
김주록	$400
문종천	$200
송수일	$100
신건석	$100

이름	납부금액
윤창환	$100
장세찬	$600
장칠광	$100
최송자	$100
최연일	$100
황성욱	$100
37회	
노태영	$400
서영수	$500
신기동	$500
유상박	$2,100
이재욱	
$3,500+1,000,000	
이정헌	$400
이청혜 · 이규청(34회)	
$31,000+5,800,000	
정윤기	
$1,200+3,367,200	
38회	
구본철	$3,900
권철기	$500
김명석	$200
김상균	$400
김융소	$200
김희한	$500
배영천	$100
백성욱	$800
손성준	$300
윤광열	$200
정규용	$500
정병하	$500
정태진	$500
정호용	$200
39회	
권오갑	$300
김완조	$500
나기도	$1,400
윤동수	$200
이광백	$300
이봉기	$500
이정무	$500

이름	납부금액
정무흠	$100
40회	
김병수	$400
김준기	$350
김태우	$1,500
윤문길	$150
이종술	$150
이중희	$350
정영섭	
$400+10,000,000	
허재경	$400
41회	
지용백	$100
42회	
정인국	$200
44회	
김정균	$100
47회	
권종효	$100
49회	
정환곤	$100
50회	
류삼열	$100
55회	
신재길	$100
57회	
서정곤	$200
58회	
박소향	$400
59회	
김경미	$400

이름	납부금액
60회	
이영직	$100
61회	
조명호	$400

이름	납부금액

2015년 동창회비 납부 현황

*10월 5일까지 납부해주신 분 명단입니다.

이름
22회
김영권
25회
노영하
안차완
26회
송준영
27회
김경수
반수경
백태룡
이교연
정창근
28회
박진홍
오범희
윤영길
29회
박상곤
박영춘
박진상
송문원
30회
권득기
김도상
김병화
김세현
김영수
소원영
송석호
송준철
이웅길
이정창

이름
31회
구자훈
김영명
석재수
엄정섭
이봉조
이양우
이희석
32회
김동환
김정만
김희태
유안언
이주원
정기준
최종명
33회
박문재
박원길
양의석
이규보
이죽내
이학용
인주철
34회
김원재
김충남
편영식
35회
김무현
김상도
김영희
김유문
김장환
박동술
박영남

이름
이원순
최유근
36회
강병조
권국현
박도수
백용현
송풍호
심청택
정수광
37회
권굉우
권욱진
김광수
김종율
박동성
박영철
박의현
성기태
신홍식
이동구
38회
권정윤
남봉우
노한기
박동열
박동춘
박무길
박병기
안태수
이승정
최영창
39회
강덕식
곽평순
김약호

이름
김희택
박난규
서영호
정병주
정재명
조호철
조희웅
채영석
최동수
40회
곽재영
김옥동
김완섭
김종환
김징균
도영구
도재욱
박영호
박준식
이승기
이영헌
채종욱
한승세
41회
강임주
김원호
김징현
김현철
박영우
서정희
윤영국
이동수
42회
권태찬
김용주
김종식
서석주

이름
송재권
은종대
이광열
이병승
이정근
정무달
최병연
추연만
43회
권광인
김건우
김기주
김세동
남수현
박봉훈
박상열
방용준
손경식
안대덕
우성구
유용운
윤덕구
이광숙
이규석
이진식
장병준
전진곤
정화선
조동규
조병권
조성경
조영철
조원현
지용철
최시호
황보백
44회
권종국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김광훈	조건희	박성배	한승욱	김호각
김권배	최영욱	박윤기		박관규
김봉일	허정욱	박정국	**49회**	박문흠
김애라	허찬희	박종대	강순병	박원균
김옥배		변진석	강철형	박재신
김인호	**46회**	송광순	김기산	서노교
김홍진	권건영	신순희	김정식	서정욱
배옥석	김석찬	유영구	김종서	석대식
배충근	김신향	유창근	김현준	안기영
배형일	김옥희	윤경식	김혜영	안면중
백상헌	김재룡	이동훈	박철희	우영훈
서혜진	김흥식	이준희	배덕수	이상락
여형태	박영모	전동석	배홍갑	이영만
오천석	백영직	정용재	손석수	이정철
이균증	서재성		손종휘	이종근
이상숙	손익경	**48회**	손찬락	이충렬
이석균	송홍석	강훈수	송중원	장원삼
이웅렬	안욱수	김기식	안기성	정현대
이정규	이길양	김두환	오수희	조형곤
이태성	이병기	김복연	오영철	추동호
임탕식	이탁	김시동	이관식	
정상호	장재국	김원섭	이관호	**51회**
조영호	정문관	김윤년	이상욱	강구정
최도영	정성권	김인호	이승철	강수찬
한건호	정성희	김지성	이신하	강인구
한치동	정철호	김창윤	임재양	강재원
	정해익	김항재	정경재	고삼규
45회	차순도	남충희	조영수	권석룡
김문수	채유호	류수현	최영철	권중혁
김성식	최병희	문병천	하영수	김경수
김성화	한기환	박대환	한창호	김광석
김종훈	한대기	박영식		김동석
김홍태		박은호	**50회**	김무원
박용일	**47회**	박재복	권영근	김시환
안도환	권기영	박창윤	권오춘	김재왕
이병수	김갑병	서민호	길영태	김현구
이석형	김광수	손은익	김기호	박봉기
이성태	김교선	이내호	김상유	박성민
이원식	김성조	이동철	김우택	박은미
이헌주	김용진	이용우	김재연	방성혁
이호성	김인주	정혜영	김정범	손희철
장의현	김제형	천병렬	김종윤	신인석
전영준	김종인	최세영	김준식	윤병헌
	김판석	하정상	김형수	이경수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경영	최은경	박순원	이영환	조재훈
이상무	추진신	박한배	이원기	최영환
이상복	홍성권	백효종	이윤근	최지용
이우녕		성열오	이정형	최희만
이원석	**53회**	손효돈	이종훈	홍순만
이충기	강긍모	여민희	이충형	홍원표
임영미	강헌구	윤영팔	이태우	
장내원	권영식	이상민	장필식	**57회**
장대성	권종설	이재흠	정학영	권혁진
장병원	김경율	이정호	정현주	김기범
정영식	김상열	이지연	조창호	김동희
정웅표	김세연	정두선	최정현	김용현
정진홍	김숙영	정홍우	한동길	김은숙
정혜리	김재석	주대현	허주희	김정열
조재영	노기석	최경수		김진경
최관수	박영호	최동호	**56회**	김철진
최재성	변정환	최창혁	구성모	노은석
하용수	서경란	하승우	권윤정	류재근
한금주	손수준	홍성범	금동윤	류형호
	안홍남		김대현	박병준
52회	이구희	**55회**	김상경	박상익
강민구	이민석	강도원	김익수	박정철
구본신	이민재	김광원	김인환	박주희
김기홍	이성구	김귀란	김지언	박태규
김도수	이성문	김대현	류시일	배기열
김동억	이수형	김동환	박재경	배용철
김상운	임성이	김명규	백승종	백지령
김철규	장유석	김숙희	서만수	서상문
나건연	최성관	김은영	성준제	성이경
남문진	최정윤	김재우	신승헌	신상근
민병우	한승범	김하식	심육택	오성윤
박성환	허상명	남대희	안영	이경호
박재율	현향숙	박성근	윤기성	이승민
배성일		박승우	이섭	이연희
손병우	**54회**	백승창	이종인	전성호
이경호	권영수	상영호	이창형	정낙홍
이동국	김덕윤	송소현	이홍규	조준현
이무상	김병곤	신정애	전석구	주은희
이성원	김수동	신현호	정영석	천임순
이순화	김영진	윤광명	정용태	최동락
이장철	김영환	이남혁	정훈	최성곤
장원표	남윤성	이상권	조명래	하미희
조진환	류춘욱	이성락	조미경	허현준
천동욱	박순우	이시동	조응래	현대성

동 창 회 비　현 황

이름
58회
강래균
강태경
금민수
김문호
김성기
김윤영
김준홍
김탁관
김학근
박경희
박기수
서영익
신승호
오훈규
이호영
장덕진
정병용
표동철
한주섭
59회
강창진
권기범
권옥희
권중구
권태훈
김대영
김대현
김은남
노동우
박건욱
박미영
백승희
백인화
백종대
서인경
손정애
예미경
오현석
유진태
이기준
이동욱
이두기

이름
이미정
이상미
이원경
이원훈
이장규
이정우
이정우
이주영
이형주
임현주
전홍배
정주화
조정아
최기선
최은진
황준구
60회
권대구
김경호
김기연
김동훈
김보미
김소희
김창수
김채기
김태석
김태형
김태훈
박범준
배호상
백미영
백승혜
신동필
양동렬
오상호
윤혜정
이경림
이인수
이종현
이태현
장화영
정기재
정진원

이름
정진태
한정훈
한창욱
황종현
61회
강유나
강현욱
권영락
권오대
김영탁
김영환
김장오
김정일
김준홍
도진국
민복기
박경식
박근홍
박미영
서지영
여동근
우상균
이기흥
이동영
이동훈
이영학
이용환
이정훈
이종우
이종협
장병두
장형욱
정규영
정진용
제석준
최윤석
추호식
홍지연
62회
김미정
김영돈
김영희

이름
남현철
도승경
도현우
류남희
박진형
손희강
오창기
이상호
이상희
이수형
이응창
이철희
정지영
정태균
천상욱
최병영
황위경
63회
권태정
김정규
김호균
박민식
박영찬
박준철
상동민
신동우
여창기
유성호
이동걸
이신일
이예진
이정미
이종협
이춘희
임정훈
정충일
조재현
천경아
최병렬
홍성연
64회

이름
고상봉
권동수
김경원
김재한
김태일
김형섭
노선주
신상철
신승철
심삼도
오병민
이영두
이우근
이현주
장효찬
전병규
정치영
한창규
황규하
65회
김병익
김성규
김양태
김종엽
김찬중
김태훈
노재수
박성원
서영진
서준영
이영진
주형돈
홍정헌
66회
구순정
김영은
김은진
김종연
김주현
김혜경
변승득
서준형

이름
손준혁
윤성원
이경우
이성만
최영준
최완석
67회
권민경
김은수
김진영
김현철
남형곤
신경식
윤혁진
이상빈
이용직
전영환
68회
김형곤
남순영
류태하
박정엽
양종원
양진훈
이경열
정상식
황준경
69회
권도엽
김건현
김광현
김이혁
이지혜
이창민
장선익
정덕원
정의윤
70회
김창현
배선영

이름
신영아
최희정
허준
홍석진
71회
김기홍
김지민
이상윤
이호철
72회
김현지
김호연
박경덕
우정민
이승수
73회
강건우
김재훈
배성근
배진영
이화정
74회
김진혁
류정훈
임현정
조윤정
황준현
75회
정혜정
77회
박미영
이현정

2015년 년회비는 2016년 2월까지 납부 가능하며,
이후 납부자 명단은 2016년 4월 안행지 봄호에 일괄 수록될 예정입니다.
동창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이사 **민복기**(61회)

회수	성명	병원명	전화번호	주소
16	홍선희		02–535–0827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APT 2동 715호
17	안두홍		053–351–7989	대구 북구 침산3동 233–3 동아2차무지개아파트 206–803
18	이동식		053–741–5471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090–6 수성보성타운 107–503
19	김익동		053–256–0066	대구 수성구 범어3동 수성래미안APT 105–1201
19	서휘수		053–634–0644	대구 달서구 월성동 500–13 월성우방아파트 102–406
23	김희철	이현연합의원	053–555–3397	대구 서구 평리6동 573–5(2층)
24	조준승		053–745–1609	대구 중구 대봉동 60–10 센트로팰리스 101–1601
25	오태환		053–741–0510	대구 수성구 만촌동 1429–6 메트로팔레스 209–1001
26	황일우		053–761–5106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613 신세계타운 12–202
27	이철상		053–766–3666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613 신세계아파트 12–602
27	김경수	낙타연합정형외과의원	053–756–3000	대구 동구 신천3동 142–3
28	박진홍	박진홍정형외과의원	053–257–2135	대구 중구 종로1가 41
29	김두희		053–743–9596	대구 수성동2가 룸바드아파트 101–502
29	송문원	효성병원 산부인과	053–766–7070	대구 수성구 수성로 194(중동)
30	이정창	이정창이비인후과의원	053–424–2600	대구 중구 공평동 81–1
30	전재규		053–591–5259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성서2차영남우방타운 106–401
31	박승국	이시아요양병원	053–983–7700	대구 동구 파계로 6로 16
32	정인호		053–765–3360	대구 수성구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1508–205
33	박원길		053–766–8235	대구 수성구 상동 268–3
33	인주철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053–715–7575	대구 북구 학정로 515(학정동)
34	김유문	동대구의원	053–755–1339	대구 동구 신천3동 142–4
34	정영식		053–745–7575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우방아파트 116–1505
35	김장환	김장환이비인후과의원	053–257–2774	대구 중구 종로1가 6–5
35	이원순	청구정형외과의원	053–421–7000	대구 동구 신천1동 787–6
36	장기용		053–588–9766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108–603
36	강병조	배성병원 신경정신과	053–383–2700	대구 북구 검단로 140(검단동)
37	박영철	대봉정형외과의원	053–471–9098	대구 남구 이천동 184–41
37	박의현	박의현구심내과의원	053–252–1785	대구 중구 대봉1동 20–65
38	박무길		053–754–5561	대구 수성구 상동 555 수성동일하이빌레이크시티 105–1403
38	박동춘		010–2517–1096	경북 청도군 각북면 우산리 94–2
39	김약호	김약호내과의원	053–555–6030	대구 서구 달서로 159(비산동)
39	채희갑	건강백세내과의원	053–752–0141	대구 달구벌대로 2401(범어동)
40	김완섭	킴스 건강내과 · 외과의원	053–357–8731	대구 북구 침산남로 23(노원동1가)
40	김주열		053–985–1288	대구 동구 지묘동 215–5 보성아파트 101–407
41	이상흔	보훈병원	053–630–7000	대구 달서구 월곡로60(도원동 748)
41	박경동	효성병원 산부인과	053–766–7070	대구 수성구 중동 105–2
42	김용구	대구의료원 정형외과	053–560–7271	대구 서구 평리로 157(중리동)
42	송재권	송이비인후과의원	053–954–7575	대구 동구 신암1동 592–2
43	조병권	동산산부인과의원	053–621–4533	대구 남구 대명9동 909–1
43	조영철	파티마내과의원	053–852–6666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4리 135–27
44	배충근	배충근내과의원	053–765–1999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262–2
44	오신열	오신열신경정신과의원	053–623–0013	대구 남구 대명6동 1056–1 문화빌딩 2층
45	박용훈	영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053–620–3532	대구 남구 대명5동 317–1
45	이종룡	지노메디여성병원	053–757–2000	대구 수성구 만촌1동 1356–17
46	성주경	경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053–420–5655	대구 중구 삼덕동2가 50
46	정선권	아세아정형외과의원	053–582–5400	대구 달서구 이곡2동 902–3
47	전동석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053–250–7222	대구 중구 동산동 194
47	김영근		010–4512–4512	대구 수성구 수성로71 수성동일하이빌레이크시티 105–1409
48	박재복	대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병리학교실	053–650–4155	대구 남구 대명4동 3056–6
48	박영식	박이비인후과의원	053–682–2315	대구 남구 대명9동 901–1
49	이재경	제이미주병원	053–592–7119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51–1
49	이만진	코코플러스이비인후과의원	053–744–1407	대구 서구 평리로 243(중리동)
50	안면중	하양연합정형외과의원	053–856–7722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66–6
50	이유철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미생물학교실	053–420–4843	대구 중구 동인동2가 101
51	이원석	박외과 · 이내과연합의원	054–973–1147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50–2
51	이헌수	엘르산부인과의원	053–593–9000	대구 달서구 이곡2동 1198–1 클리닉좋은의사들 2층
52	박성환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외과	053–650–4055	대구 남구 대명4동 3056–6
52	김상운	영남대학교의료원 외과	053–620–3589	대구 남구 현충로 170
53	손수준	수경이비인후과의원	053–743–8275	대구 수성구 범어1동 563–4 애플타워 11층
53	송도영	파티마병원 진단검사의학과	053–940–7269	대구 동구 신암4동 576–31
54	백효종	백효종내과의원	053–958–5555	대구 동구 신암1동 603–126(2층)
54	박순원	박순원에스앤비의원	053–422–7565	대구 중구 대봉1동 23–7 파이론빌딩 4층
55	박선우	선우속시원내과의원	053–322–0315	대구 북구 태전2동 993–9 종수빌딩 2층
55	신현호	신현호병리과의원	053–768–5317	대구 수성구 황금2동 682–2 제우빌딩 4층
56	백승종	광장신경외과의원	053–624–7755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36(두류동)
56	이종호	열린아동병원	053–269–7000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2(감삼동)
57	이상국	서부산센텀병원 정형외과	051–329–3000	부산 사상구 괘법동 558–5
57	최성곤	최성곤내과의원	053–782–3190	대구 수성구 범물2동 455–3
58	이동훈	라인성형외과의원	053–254–1555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75–1
58	이영헌	칠곡가톨릭피부과의원	054–972–6399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1리 291–6
59	황동하	황동하성형외과의원	053–425–4254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15
59	정재군	정재군내과의원	053–812–6517	경북 경산시 중방동 520–2
60	이응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	053–200–2114	대구 북구 학정동 474
60	김동훈	성모이비인후과의원	053–326–7171	대구 북구 구암동 769–3 부일빌딩 2층
61	제석준	건강제일내과의원	053–255–8333	대구 중구 대신동 871 서문메디칼빌딩 2,3층
61	여동근	원대연합의원	053–354–8050	대구 서구 원대동3가 1431–3
62	정진욱	우리연합정형외과 · 신경외과	053–744–8330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 330
62	이수형	새빛안과의원	053–322–1901	대구 북구 태전동 940
63	전수열	튼튼마디정형외과의원	053–721–7766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117–3
63	이현석	현대이비인후과의원	054–231–7582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6–7
64	김대원	티아라의원	053–752–3000	대구 중구 삼덕동1가 44–2
64	박진욱	마미안여성병원	053–813–1100	경북 경산시 중방동 849–1
65	김용운	수성메트로병원 정형외과	053–743–7777	대구 수성구 만촌2동 1037–17
65	김진년	조은내과의원	043–882–8880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25–20
66	이성만	굳센병원 정형외과	053–710–0500	대구 수성구 범어동 1806
66	변승득	척재활의학과의원	053–811–9382	경북 경산시 중앙로 76, 3층(중방동 538–3번지)

편집 후기

먼저 옥고를 보내주신 동문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회비, 장학금, 발전기금 등 돈에 대한 보고가 특별히 많습니다. 확실히 동창회 기관지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지용철 회장님께서 지부 소식, 재무 및 장학 관련 자료를 일일이 챙겨주시고 자세히 검토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변변한 원고도 없이 편집하느라 마음고생이 심했을 편집기획사 이포럼 이어진 대표님과 이혜미 씨, 동창회 박은미 실장께 감사 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공보이사 김인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임원 명단

회장	**지용철**	43회	053-630-6271
수석부회장	**송중원**	49회	053-426-5151
부회장	**김성학**	41회	051-864-2222
부회장	**김용신**	47회	02-2001-2136
부회장	**조병채**	51회	053-420-5001
부회장	**김권배**	44회	053-250-7423
부회장	**최병연**	42회	053-620-3792
부회장	**김제형**	47회	053-954-4288
부회장	**김재왕**	51회	054-856-7111
부회장	**박성민**	51회	053-631-3771
부회장	**박문흠**	50회	053-561-5665
부회장	**안기영**	50회	053-422-6222
부회장	**강인구**	51회	053-794-9400
부회장	**고삼규**	51회	053-609-3170
부회장	**곽동협**	52회	053-252-2401
부회장	**이민석**	53회	053-756-3006
부회장	**손효돈**	54회	053-588-9666
부회장	**정현주**	55회	053-253-0707
총무이사	**김문규**	57회	053-420-4876
재무이사	**제석준**	61회	053-255-8333
공보이사	**김인겸**	54회	053-420-4833
사업이사	**최동호**	54회	053-721-7218
조직이사	**신현호**	55회	053-768-5317
학술이사	**김정민**	59회	053-420-4845
정보이사	**상영호**	55회	053-741-8575
장학이사	**민복기**	61회	053-425-7582
정책이사	**김원섭**	48회	053-782-4008
정책이사	**최창혁**	54회	053-650-4276
정책이사	**최재석**	58회	1644-8575
정책이사	**신현웅**	58회	053-940-7160
정책이사	**서영익**	58회	053-255-3134
정책이사	**김경호**	62회	053-742-0100
정책이사	**임정훈**	63회	053-795-7585
정책이사	**이우근**	64회	053-793-9030
정책이사	**변승득**	66회	053-752-9382
감사	**이정근**	42회	053-321-0020
감사	**최시호**	43회	053-426-5060

동창회비 송금 안내

2015학년도 경북의대 동창회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납부하신 동창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개원의, 봉직의 : 50,000원
- 전공의, 공보의 : 40,000원

경북의대 동창회비 온라인 송금

대구은행 : 508-11-718465-9 예금주 : 경북의대동창회(제석준)
문의처 : 경북의대 동창회 사무실
전화 : (053)422-5114, 420-4981
팩스 : (053)424-0799
송금하신 후 동창회 사무실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 송금

송금 온라인 계좌는 대구은행 149-04-000196-5
예금주는 경북의대동창회입니다.
장학기금 송금에 대한 문의는
동창회 사무실 (053)422-5114로 연락바랍니다.

회무 연락처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80 경북의대 본관 1층
동창회 사무실(우 : 41944)
담당 : 박은미 실장
☎ (053)422-5114, 420-4981 / FAX. (053)424-0799
휴대전화 : 010-8986-2550
e-mail : kpmedal@hanmail.net / medal@knu.ac.kr

경북의대 동창회 홈페이지 주소

www.kpmedal.co.kr

경북의대 동창회 '안행' 원고 모집

kpmedal77@hanmail.net

회원 활동사항 및 동문들의 근황을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 지부 또는 기별 홈페이지를 알려주시면, 동창회 홈페이지에 링크하겠습니다.
정보이사 상영호 : sangyh@naver.com

2015년도 경북의대 동창회 전체이사회

일시 :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자금성

문의 : 경북의대 동창회 사무실 (053)422-5114, 420-4981